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40104

2010년8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계축일기>의 소설적 특성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정 은

<계축일기>의 소설적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yechukilgi> as fiction

2010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정 은

<계축일기>의 소설적 특성 연구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정 은

박정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10 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사 4

Ⅱ. <계축일기>의 장르와 작자 9
1. 장르에 관한 논의 9
2. 작자에 관한 논의 13

Ⅲ. <계축일기>의 구조 18
1. 시간의 변화 구조 18
2. 선과 악의 대립 구조 21

Ⅳ. <계축일기>에 나타난 허구성 28
1. 실사와 허구적 서사 28
2. 등장인물의 가상적 행위 40

Ⅴ. 문학사적 가치 59

Ⅵ. 결론 62

참고문헌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yechukilgi> as fiction

Bak Jeong-eun
Advisor : Prof. Kim Su-ju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Gyechukilgi> which deals with secret stories of the court in Joseon Period including <Hanjungrok> and <Inhyunwanghujeon> has been highly recognized as having great literary value. It has some stories occurring for 20 years as follows: Queen Mother Inmok was selected as the second queen; she had babies of Princess Jungmyong and Prince Yongchang; and King Injo's restoration. This study clarifies the genre of <Gyechukilgi>, examines what reasons features of the genre are revealed on, structures of the story and the author's attitude to stories. Then it identifies the reasons and aspects of the conflicts in the stories, and what ways are used to express the author's intention effectively in order to find values of the story as a novel.

<Gyechukilgi> was described centered on what happened in the period governed by Gwanghaegun, but this study considers the genre of the work as a novel it has strong nature of a novel. It deals with part of the history, but it is considered as the court novel in that it used the place where the public could not make an easy access as a background. The discussion on the author was made in various viewpoints, but this study considers the

author of the novel as follows: princess Jungmyong who was smart and had outstanding writing skill collected what Queen Mother Inmok wrote and data of that time and wrote the novel based on the testimony of the court ladies who served for Queen Mother Inmok. The princess who was devoted to her parents wrote it to console her mother and used expressions of court ladies to give reality to the novel.

The structure of the <Gyechukilgi> is composed in consecutive order. It is chronologically structures as most of the classical novels are, but it does not describe stories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with some changes in time. Stories of the past are inserted into stories or stories of future are presented in advance, which breaks chronological order and highlights the effect of epic.

<Gyechukilgi> describes stories according to time flow, but the entire plot focuses on Gwanghaegun's enthronement, Imhaegun's conspiracy, Gyechuk-oksa(Death In Prison), and Confinement to Seogung. Therefore, the reasons of main conflicts in happenings in it and developmental aspects of the conflicts are roughly categorized into two: conflicts between Gwanghaegun who had no legitimacy and other princes, and his opposition against Queen Mother Inmok. The conflicts were derived from legitimacy, which deteriora-ted in the process to maintain absolute power and were released by external reasons.

<Gyechukilgi> is a novel with background of historical events, but as it was reorganized to show the author's intention, its falsity is remarkable. Such falsity indicates that it has a feature as a novel rather than a simple record of facts. The characters are real, but Gwanghaegun is reborn as a representative evil person and Queen Mother Inmok as a representative good person. It reflects the author's intention to accuse evil behaviors of

Gwanghaegun and his followers, and inform of suffering and good behaviors of Queen Mother Inmok and her followers.

<Gyechukilgi> is highly recognized as one of highly valuable representative court literary works including <Hanjungrok> and <Inhyunwanghujeon>. It describes life of suffering in the court in the novel,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novel literature. It mainly uses dialogues to dynamically develop stories and inserts letters to describe changes in psychology of characters. It has a great meaning in history of literature in that it was written in woman's perspective and sublimed woman's grief into a literary work. <Gyechukilgi> contains stories on the court ladies who played important part in the court, which are not available in historical or public records. It has ancient words and terms used in the court, which is considered as important data for research on special language, and it is very helpful for research on Korean used in middle ages in that it used pure native tongues.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계축일기>는 『셔궁일긔』에 실려 있는 일련의 작품 가운데 한 편으로 원래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1947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서울대학교 조선어문학연구회 주최 도서전시회에 구왕궁(舊王宮) 낙선재(樂善齋)본으로 전시되면서 학계에 알려졌다.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중에 원본을 잃어버려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현재 『조선역대여류문집』(민병도 편, 을유문화사, 1950)에 영인되어 영인본만 전해지고 있다.

1953년에 임창순이 「궁정문학 소고 -서궁일기를 발견하고서-」(대학신문 50호, 서울대학교, 1953년 6월 8일)를 발표하며 <계축일기>의 이본으로 <서궁일기>가 학계에 소개된다. 임창순본으로 전하는 <서궁일기>는 천권(1~90쪽, <서궁일긔상>)과 지권(1~81쪽)의 앞부분(1~58쪽)이 <서궁일기상>으로 <계축일기>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서궁일기>가 원래 홍기원 소장본이었음이 밝혀지게 되면서 홍기원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임창순이 학계에 처음 소개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1958년에 강한영에 의해 교주본이 나오게 되면서 <계축일기>는 학계의 관심을 고조시켰고 여러 학자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계축일기>는 <한중록>·<인현왕후전>과 더불어 조선시대 궁중의 비사를 소재로 다룬 작품으로서 많은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선조 말 인목대비가 두 번째 왕비로 간택되어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을 출산하는 것부터 인조반정까지 약 20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계축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임해군의 죽음과 계축옥사를 시점으로 한 인목대비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죽음, 인목대비를 모시던 많은 나인들의 죽음, 영창대군의 죽음과 인목대비의 폐모 사건, 그리고 서궁 유폐 사건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계축일기>가 궁중 문학의 한 장르인 궁중 소설로서 작품 자체가 가지는 가치보다는 장르나 작가, 창작시기에 관한 논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장르를 보면 많은 학자들이 <계축일기>를 기록적 성격이 강한 실기문학의 하나인 수필로 보고 있다. 실기문학은 상상이나 허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 체험과 견문을 소재로 하여 쓴 문학 작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가 대표적인 형식이고, 수필도 실기문학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축일기>를 과연 실기적 성격이 강한 수필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는 의문이 든다. <계축일기>를 수필로 보기에는 이 작품에 소설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실기라고 제목에 명시된 다른 작품도 그 장르가 소설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계축일기>는 작품의 구성이 현대 소설의 5단구성과 유사하고, 등장인물의 묘사가 실제모습과는 많은 부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인물의 성격이 단면적일 수는 없고 선과 악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작품에서 광해군은 악한 성정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인목대비는 한없이 지고지순한 여인으로 악한 광해군에게 당하기만 하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즉, 실존인물이 등장하지만 인목대비와 그 주변 인물들을 선하게만 그리며 피해자로 보려 했던 점, 광해군을 성정이 포악하고 악을 대표하는 인물처럼 묘사하려 한 점 등 그 내용은 실제모습과 많이 다르다. 이것은 등장인물의 성격이 작자에 의해 재창조된 것으로 소설의 큰 특징인 허구성을 알 수 있게 해주어 <계축일기>를 소설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계축일기>는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폐출된 후에 인목대비가 받은 고통과 수난을 세상에 알리고, 광해군은 효를 행하지 않은 실덕한 군주이고 그 자질이 부족하기에 인조반정은 꼭 필요하고 꼭 일어났어야만 하는 것이었다는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인목대비를 위로하려는 의도에서 광해군의 인물됨이나 행위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허구적으로 표현하여 실제 광해군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게 비속화 시키고 있다. 실사를 다루었지만 작자가 작품을 대하는 시각에 따라 재구성 된 것이다. 내용전개를 볼 때에도 다소 과장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 등이 나타나며 많은 고전소설의 주제가 권선징악으로 되어있는데 <계축일기> 역시 선과 악의

대립이 뚜렷하고 권선징악의 주제가 나타난다는 점 등을 보면 다분히 고전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문학 작품 중에 <화용도 실기>처럼 표제가 '00실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장르는 실기가 아닌 전형적인 소설에 속하는 작품들이 있다. 즉, 제목은 실기라고 썼지만 실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작품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그 장르는 소설인 것이다. 이처럼 작품의 장르는 제목에 제시된 것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계축일기>도 제목에는 일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장르를 소설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계축일기>는 과장되고 허구적인 내용이 많다는 점과, 주제가 권선징악이라는 점, 등장인물의 선과 악이 극명히 대비된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고전소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를 배경으로 했지만 허구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소설과 구분되고, 궁중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궁중소설로서의 독특한 특징을 갖는 새로운 장르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계축일기>의 장르를 궁중에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한 궁중소설로 본다면 작품이 소설로서 갖는 문학사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작자의 창작의도를 근거로 하여 작품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계축일기>의 장르를 명확히 하고, 장르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작품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며 작자의 작품화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작품에 나타나는 갈등과 그것이 어떻게 해소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뒤 작자가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작품이 소설로서 가지는 가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장르와 작자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장르와 작자를 밝힌 뒤 작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주된 갈등의 원인과 그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소설적 특성을 잘 타나내주는 허구성에 대하여 실제 역사와 작품 속의 사건을 비교해 보고, 등장인물들이 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 되어있는지를 통해 알아보

고자 한다.

2. 연구사

<계축일기>는 원래 궁중도서관에 있던 것으로 궁중에서 전해오던 작품인데 이본 혹은 관련 작품이 발굴되고 소개되면서 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주로 작자문제, 장르문제 등을 다루었다.

작자에 관한 연구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자에 대한 논의는 인목대비전의 나인들이 지었다는 나인설과 인목대비나 정명공주가 지었다는 대비공주설이 주를 이루어왔고, 나인설은 나인복수설과 나인단수설로 나누어 논의되기도 했으며, 인목대비설도 인목대비 단독작이라는 설, 인목대비와 나인의 합작이라는 설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정명공주의 단독작품이라는 설, 정명공주와 나인의 합작이라는 설 등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나인설은 이병기, 김기동, 조윤제, 민영대, 김신연, 정은임 등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였다. 이병기는 민병도의 『조선역대여류문집』의 <계축일기> 영인본에 실린 해제에 "ᄂᆡ인들이 잠간 긔록 ᄒᆞ노라."는 부분을 통해 <계축일기>의 작자를 서궁에 유폐된 인목대비를 모시던 나인으로 보았다.[1] 이어서 1968년에 "<계축일기>는 당시 서궁에 모시고 있던 어느 나인이 직접 당하고 본 바를 생신(生新)하고 실감적인 필치로 서술 묘사한 것이었다."라고 하여, 나인이 작자임을 거듭 주장하였다.[2]

김기동은 작자가 성명 미상의 인목대비의 나인이라 하여 나인이 작자임을 주장하였고[3], 조윤제는 『한국문학사』에서 인목대비를 서궁에 모시고 있던 어느 나인이 영창대군의 처참한 일과 이에 대한 인목대비의 심정이며 인목대비가 궁금에 들어가실 때부터 당하던 궁내의 여러 가지 질투 모해를 자상히 그린 것이라 하여 나인 작자설을 수긍했다.[4]

---

1) 민병도, 『조선역대여류문집』, 을유문화사, 1950.
2) 이병기・백철 공저,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68.
3)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65.

민영대는 나인들이 중심이 된 작품의 이야기 전개가 실감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작품 내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인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간혹 저속한 표현이 보이고 작품의 중심이 되는 역사적 배경인 계축옥사의 진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나인들이 당했던 억울한 박해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고, 영창대군에게까지 존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하여 당시의 상황을 지켜보았던 궁인이라고 주장하였다.[5]

김신연은 <서궁일기상>의 세부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나인설을 보다 구체화하여 변상궁이 작자라고 주장하였다. 작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목도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쓸 수 없다는 점과 문맥의 여러 곳에서 변 상궁이 흥분하는 묘사가 발견된다는 점, 변 상궁만이 알고 있는 대목이 나온다는 점, 변 상궁이 인목대비보다 더 사려 깊은 사람으로 묘사되었다는 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변 상궁이 등장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기존의 작자설보다 발전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6]

정은임은 정명공주나 인목대비가 작자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작품에 명시된 나인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정명공주 설을 부인하는 것은 공주와 관련된 사건이 매우 간략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이라 하였다. 인목대비 설을 부인하는 이유는 첫째, 혼례 전에는 사대부가의 자녀로 교육받았고 혼례 후에는 왕비로 모든 백성의 어머니였던 대비가 극한 상황이라고 '요년' 또는 '그년'과 같은 상스러운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없었을 것이며, 둘째, 작품에 시녀 계난이 보모상궁의 종 보름이 보삭이와 같이 수많은 내인들의 이름이 거명되는데 상궁의 이름은 알 수 있을 지라도 그 종의 이름까지 기억할 수 있겠는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셋째, 영창대군이 죽은 후에는 공주가 유일한 혈육인데 공주와 관련된 부분은 간략하게 기술하면서 나인들의 수난 대목에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 있을까?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나인설을 주장하였다.[7]

---

4)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70.
5) 민영대, 『계축일기 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1990.
6) 김신연, 「서궁일기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7) 정은임 교주, 『계축일기』,이회문화사, 2005.

나인설 외에 인목대비설과 그 밖의 작자설이 있는데, 이숭녕은 강한영 교주본 <계축일기>의 序에서 작자를 “궁녀 또는 인목대비”라고 하여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궁녀나 인목대비가 지었다고 보고 있다.[8)]

임동권은 홍기원의 『서궁일긔』 서문에 저술에는 인목대비와 정명공주의 모녀 이대가 참여하였고 궁중생활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특히 선조대에서 광해군대에 이르는 궁중비화이며 당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척의 희생에 가슴 조이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하여 인목대비와 정명공주가 작자라고 주장하였다.[9)]

김용숙은 궁인들이 이 작품을 지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 하며 대화내용의 실감나는 표현과 구상성(具象性), 광해군에 대한 지나칠 만큼의 적대의식, 문장면의 교양과 사상성, 변상궁을 卞이라고 부른 점, 나인들을 통틀어 ‘종’이라고 하대한 점 등을 보아 인목대비가 작자임을 주장하였고, 광해군의 성격을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기도 했으며, <계축일기>의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고찰하여 본격적인 <계축일기>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10)]

김일근은 「계축일기 신고」에서 김용숙의 인목대비설을 부인하고 정명공주와 공주의 나인들이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풍산홍씨가에 하가했던 정명공주가 어머니의 기록을 보관해 두었다가 회고록 형식을 빌려 후일 나인을 시켜 기록한 것으로 보았다.[11)]

홍기원은 <계축일기>의 이본으로 알려진 <서궁일기>를 교주하여 출간하였으며, 여기서 그는 <서궁일기>를 上·下로나누고 上은 인목대비의 원작, 下는 정명공주의 원작이라고 밝히고 표지에 ‘인목대비정명공주원작’이라고 명기하기도 했다.[12)]

장르에 관한 연구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르에 대한 논의는 허구적이고 서사적 성격이 강한 소설로 보는 관점과 사실적 기록의 성격이 강한 수기로 보는 관점이 주를 이루었다.

<계축일기>의 장르를 소설로 본 학자는 이숭녕, 이병기, 김기동, 정병설 등이 있

---

8) 강한영 교주, 『계축일기』, 민협출판사, 1958.
9) 홍기원 역주, 『서궁일기』, 민속원, 1986.
10) 김용숙, 『이조여류문학 및 궁중풍속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70.
11) 김일근, 「계축일기 신고」, 『국어국문학』, 제55~57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2.
12) 홍기원 역주, 앞의 책.

다. 이숭녕은 교주본 <계축일기>의 서문에 <계축일기>는 궁녀 또는 인목대비의 손에서 이루어진 희귀한 사실소설로서, 현대 작가의 수법을 방불케하는 필치와, 이조 중기의 궁정에서 전개된 인정·풍속과 서로 착잡한 생활상을 서술한 작품으로, 소설 문학의 백미라고 하였다.[13] 이병기는 같은 책의 해설에서 한중록과 인형왕후전과 같은 궁중의 비사라, 옛날 같으면 민간에 퍼질 수 없다고 하여 궁중 안에서 전해 내려왔던 사실소설이며 궁중 비사라 하였다.[14]

김기동도 처음에는 <계축일기>를 궁중 소설이라는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했다.[15] 임창순은 『셔궁일긔』를 발견하고 이를 학계에 소개하면서, 작품의 제재가 조금도 보탬이 없는 실사의 기록으로 고대 소설에서와 같은 가공적 허구가 없으며 전편에 걸쳐 인물들의 개성이 살아있고, 전체의 스토리가 하나의 소설 형식을 갖추고 있어 최고의 국문 소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16] 1999년 정병설은 <계축일기>의 작자와 장르를 제3자의 역사소설로 연구했다.[17]

<계축일기>를 수필의 성격이 강한 수기문학으로 본 대표적인 학자는 신정숙과 정은임이다. 신정숙은 <계축일기>를 궁정 안에서 성립된 수기문학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18] 정은임은 <계축일기>의 실기성과 문학성을 고찰하여 실기 문학적 특성을 추출하고자 했고, 장르이론과 수용 미학적 견지에서 문학성을 고찰하였다.[19]

그 밖에 소재영은 <계축일기>를 <한중록>, <인현왕후전>과 함께 궁중문학으로 보고 그 비극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20]

작자나 장르 이외의 연구를 한 학자는 한상희, 길영경, 박연호, 성기동 등이 있다. 한상희는 <계축일기>의 작품의 표현상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 하였다.[21] 길영

---

13) 강한영 교주, 앞의 책, p.4.
14) 강한영 교주, 앞의 책, p.9.
15)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65.
16) 임창순, 「궁정문학 소고」- 서궁일긔를 발견하고서,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50호, 1993년 6월 8일자.
17) 정병설, 「계축일기의 작가문제와 역사소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15집 단일호, 한국고전문학회, 1999.
18) 신정숙, 「궁정내에서 성립된 수기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19) 정은임, 「궁정실기 문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20) 소재영, 「궁정문학의 비극성」,『민족문화연구』 3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9.
21) 한상희, 「계축일기의 표현 특성론」,『숭전어문학』 제1집, 숭전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2.

경은 임창순이 학계에 소개한 <셔궁일긔상>과 <계축일기>를 주로 표현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하여 비교를 시도하였다.[22]

박연호는 <계축일기>와 계축옥사 및 광해군의 실정을 소재로 한 한문 작품들을 서술형식과 서술의식을 통하여 계축일기의 문학적 위치와 그 질량을 재조명하였다.[23] 1985년 성기동은 <계축일기>의 제작배경, 내용분석, 작자, 원본, 제작시기, 내용의 오류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24]

이처럼 <계축일기>는 한편의 작품 속에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22) 길영경, 「셔궁일긔와 계축일기의 비교(1)」,『성대문학』 제18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3.
_____, 「셔궁일긔와 계축일기의 비교(2)」, 『성대문학』 제19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6.
23) 박연호, 「계축일기와 당시 한문일기들의 대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24) 성기동, 「계축일기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Ⅱ. <계축일기>의 장르와 작자

1. 장르에 관한 논의

<계축일기>의 장르에 관한 논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의견이 분분하여 아직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작품에 나타나는 특징과 내용을 고려하여 <계축일기>의 장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계축일기>의 장르는 기록적 성격의 수필로 보는 관점과 허구적 성격의 소설로 보는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수필(隨筆)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어떤 계획이 없이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느낌·기분·정서 등을 표현하는 산문 양식의 한 장르이다. 그것은 무형식(無形式)의 형식을 가진 비교적 짧고 개인적이며 서정적인 특성을 가진 산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일기·서간문·감상문·수상문·기행문 등이 모두 수필에 속하며 소평론(小評論)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계축일기>를 기록적 성격이 강한 수필로 보려는 대표적인 학자는 신정숙과 정은임이다.

신정숙은 <계축일기>를 수기문학(手記文學)으로 규정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① 소재에 있어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체험의 기록이다.
② 사실의 기록이면서 개성적 표현을 쓰고 있다.
③ 내용이나 서술의 태도가 실천적이고 목적의식적이다.
④ 일정한 스토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25)]

25) 신정숙, 「궁정내에서 성립된 수기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정은임 교주, 『계축일기』, 이회문화사, 2005, p.13.에서 재인용)

정은임은 <계축일기>의 장르를 수필로 보고 있는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계축일기>는 조선조 광해군편의 악행을 고발하고, 인목대비편의 수많은 시련을 극복했던 과정을 알리려는 창작 의도를 지닌 작품이다.
② 표현 수법에 의한 논란은 악행을 고발하는 대목에서 때로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표현하여 소설이 지닌 허구적인 요소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구적인 요소는 소설 이외의 양식에서도 발견된다. 오히려 '자기가 중심이 되며 타인과의 공통점이 아닌 사소한 변화에도 작자는 충분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수필문학 특성에 의한 표현 수법이다.
③ 서술 시점에서도 작자는 고소설의 특징인 주인공의 가계를 서두로 하여 탄생에서 말년에 이르는 일대기를 기술하는 평면적 서술법을 쓰지 않았으며 행복한 결말과 악인에 대한 일장의 훈계도 생략했다. 다만 그동안 겪은 고통의 날들을 다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서술자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서술시점으로 보아 <계축일기>는 소설이 될 수 없다.[26]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계축일기>는 조선시대 광해군대에 일어난 계축옥사라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된 기록적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수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축일기>는 수필이라고 하기에는 작품에 소설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계축일기>는 작품 속에 소설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문체가 당시의 고전소설과 같은 문어체로 되어있다는 점, 그 구성이 현대소설의 5단구성과 유사하다는 점, 작자의 저작 의도와 태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표현되어 허구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 등장인물이 선과 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악의 구별이 분명하다는 점, 궁극적인 주제는 권선징악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면 <계축일기>는 소설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축일기>는 조선시대에 쓰인 작품으로 당시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렇듯이 보다 오래된 시대의 말투로 의고적인 성격이 강한 문어체로 쓰였으며 궁중에서만 사

26) 정은임, 「계축일기는 과연 소설인가? - 장르 파악을 위한 재조명」, 『원우논총』 제4집, 숙명여대 대학원 원우회, 1986, p.18.

용되는 궁중어를 다수 사용하였다. 구성을 보면 발단부는 비극적 운명을 지닌 영창대군의 탄생, 전개부에서는 갑작스런 선조의 승하와 광해군의 즉위, 그로인한 비극적 사건들이 일어난다. 즉, 광해군의 정치적인 적(敵)인 영창대군을 제거하기 위한 발판으로 친형인 임해군을 사사한 사건이 발생한다. 위기부분에서는 영창대군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과정으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몰락하고 인목대비 주변의 나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인 계축옥사가 발발한다. 절정부분에 가면 영창대군이 쫓겨나 강화로 유배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말부에서 인조반정과 인목대비 복위가 나타나는 등 훌륭한 소설적 구성을 갖추었다.

작품의 중심인물인 인목대비와 광해군의 묘사에 있어서 작자가 일부러 사실과 전혀 다르게 기술하고 있고[27], 작품 속의 사건도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소설의 허구적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당시의 시대·문화·사회적 상황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작가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재구성 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고전소설은 보통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계축일기>에서 광해군은 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악한 성정만 강하게 묘사되고 인목대비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로 한없이 착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면서 착한 인목대비는 갖은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대비의 자리로 복위되고, 나쁜 광해군은 벌을 받는다는 전형적인 고전소설의 주제인 권선징악의 주제가 나타난다.

또한 고전소설은 시간의 순서에 따른 사건 진행이 많은데 <계축일기> 역시 대부분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부분적으로 시간을 소급하거나 미래의 일을 사전 제시하며 나타낸다. 고전소설은 비현실적이며 우연적인 사건이 많이 나타나는데, <계축일기>를 보면 권지2 부분에 우연성이나 비현실적 사건이 많이 나타난다.

---

27) <계축일기>에서는 광해군을 시종일관 악질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지만 선조실록에서는 그가 세자로 책봉되기 이전부터 인물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해서 선조가 세자로 세우고 싶어 했고, 여러 대신들도 종사의 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물됨이 뛰어났다고 한다.(『선조수정실록』 25집, 민족문화추진회, 1989, p.613참조)

인목대비도 <계축일기>에서는 유순하고 착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인목대비친필 술회문」(김봉규 편집,『문학사상』 통권 2호, 삼성출판사, 1972. 11월호 참조) 의 어투를 보면 '이 碎骨之怨은 天裂地摧라도 消雪하기 어렵도다'나 '恨則海沽石爛消 ㅣ 오 寃則天老地荒이라도 難解라'와 같은 원한에 가득찬 저주스러운 표현이 나타난다. 이처럼 실제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모습은 <계축일기>에서 묘사된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죽었던 나무가 살아난다던지 새가 씨앗을 물어다 주거나 배설물 속에 들어있던 씨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등의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필자는 <계축일기>가 사실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소설적인 특징이 더 두드러진다고 보아 <계축일기>를 소설의 범주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고전문학에는 제목은 실기라고 썼지만 그 장르는 소설인 작품들이 있다. <화용도실기>, <세종대왕실기>, <김응서실기>, <곽재우실기>, <남이장군실기>, <홍경래실기>, <가등청정실기>와 같은 작품을 보면 표제가 '00실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장르는 실기가 아닌 전형적인 고전소설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당시에는 실기라고 작품에 명명해 놓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있었는데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인식을 독자가 하도록 하여 읽는 내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작품 속의 이야기를 진실처럼 믿도록 하는 진실성 확보를 위한 장치이기도 했다. 이처럼 작품의 장르는 제목에 제시된 것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계축일기> 역시 작품에 일기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그 장르를 소설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계축일기>를 소설로 본다면 작품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부장르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 즉, 역사상의 사건·인물·풍속 등 사실(史實)을 소재로 하여 꾸민 소설로 보아 역사소설로 볼 것인가, 특수한 공간인 궁중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한 궁중소설로 볼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김강호는 역사소설의 특성과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첫째, 역사소설은 역사적 사실이 작가의 재구성 과정을 거쳤을 때 더욱 충실한 역사성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독자는 현실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암시받을 수 있다.
> 둘째, 역사소설은 재현예술로서의 묘사를 중시한다.
> 셋째, 역사소설은 진실을 추구하는 작가의 비판적 역사의식을 통해서만이 성립한다.
> 넷째, 역사소설의 중심인물은 시대의 총체적 파편으로서의 범주이나 시대가 요구하는 선구자, 지도자였다.
> 다섯째, 역사소설은 시대의 불안정에서 오는 강한 시대의지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고 있

다.[28]

위에서 살펴 본 역사소설의 개념과 특징을 중심으로 <계축일기>를 살펴보면 <계축일기>는 광해군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작가에 의해 재구성 된 것이기는 하지만, 작가가 의도적으로 일방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보았다는 점, 즉 광해군의 악한 점만을 부각시켰다는 점을 보면 작가가 진실을 추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계축일기>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인 광해군과 인목대비는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계축일기>는 넓은 의미로 보면 역사소설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소설로만 보기는 어렵다.

<계축일기>는 역사의 한 부분을 다루기는 했지만, 그 중심이 궁중으로 일반 백성들은 접근하기 힘든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조선조 여성들에게 지워진 원초적인 한에다 권력의 소용돌이에서 살아야했던 궁중여성들의 삶을 궁중에서 일어난 생활상과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쓰인 문학이다.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실제 성격과는 다르게 묘사된 부분이 많고,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였지만 있는 그대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작자에 의해 재해석되었다. 즉, 작자의 저작의도와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에 의해서 일방적인 시각에서 쓰인 부분이 많다는 점 등을 보면 허구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축일기>는 역사성보다도 허구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 장르를 소설로 보고, 그 중에서도 주된 배경이 되는 궁중을 중심으로 한 궁중소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2. 작자에 관한 논의

문학작품에는 작자의 삶과 생각, 감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작자에 관한 정보는 작품을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계축일기>라는

28) 김강호, 「역사소설론 시고」, 『국어국문학지』 제18권, 국어국문학회, 1982, pp.151~152.

작품을 잘 이해하려면 이 작품의 작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계축일기>는 작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혀진 작품이 아니기에 작자에 관한 논의 또한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주로 나인 설, 인목대비 설, 정명공주 설 등이 연구되어 왔는데 필자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작자를 설정해 보았다.

작품 끝에 'ᄂᆡ인들이 잠깐 기록하노라.'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작자를 설정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계축일기>의 장르를 수필로 본다면 수필은 체험을 기록했다는 특성이 두드러지므로 서궁에 유폐된 인목대비를 모시던 나인들이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하여 쓴 글로 나인이 지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나인'이라고 하지 않고 복수를 나타내는 '-들'이 붙어 '나인들'이라고 했으므로 작자는 나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나인임을 알 수 있다.

민영대는 나인설을 주장했는데 장르분석이 아닌 작품분석을 통해 그 근거를 제시했다.

① 나인들이 중심이 된 작품의 이야기 전개가 실감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② 작품 내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인들을 가리키고 있다.
③ 간혹 저속한 표현이 보인다.
④ 작품에서 중심이 되는 역사적 배경인 계축옥사의 진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나인들이 당했던 억울한 박해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⑤ 영창대군에게까지 존칭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대비가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나인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대전, 내적이라는 표현을 기술하였다.
⑦ 경칭을 쓰면서도 때때로 형편없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⑧ 인목대비 친필 글에서의 광해군에 대한 표현으로 자주 썼다는 '역괴포혼', '불공대천지수'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
⑨ 반정 이후에 쓰여 진 글로 보아 인목대비나 정명공주는 이미 지존의 위치에 있으면서 체통 상 쓰지 않았을 것이다.
⑩ 나인들이나, 궁 밖의 무당들의 이름까지 소상하게 나열된 점에 대비나 공주라고 보기는 납득이 어렵다.
⑪ 나인들이 과거에 겪었던 일까지 소상히 기술하고 있다.
⑫ 작품내용에서 유릉저주사건이 박동량의 죄가 아님을 인목대비는 명백히 알고 있었는데 박동량의 모해로 생각하고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⑬ 『셔궁일긔』 지권에 「仁穆大妃親筆佛經」이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인목대비가 아버지인 김제남, 어머니인 광산부부인 노씨, 세 동생, 영창대군, 나인 등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들의 명복을 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에는 어머니 노씨의 안부를 자주 묻는 것으로, 세 동생 중 맏이만 죽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불경의 내용과는 판이하다. 이점은 인목대비작이 아니라 대비를 모시던 궁인이 잘못 알고 기술했다.[29]

그러나 나인이 단독으로 다루기에는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인의 입장에서 정치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점과 어찌 보면 궁중의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궁궐 밖에서는 알기 힘든 구중의 내밀한 이야기를 신분이 낮은 나인들이 공식적으로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나인이 이 글을 썼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김용숙은 나인들이 이 작품을 지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다음의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인목대비설을 구체화하였다. 당시에 인목대비를 모시던 나인들 대부분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였고, 살아남은 나인들은 몇 명 안 되었고, 그러한 나인 중에 <계축일기>를 쓸 만큼의 교양을 가지고 있던 나인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① 대화 내용의 실감나는 표현과 구상성으로 보아,
② 광해군에 대한 지나칠 만큼의 적대 의식으로 보아,
③ 문장면의 교양과 사상성으로 보아,
④ 변상궁을 '卞'이라고 부른 점으로 보아,
⑤ 내인들을 통털어 '종'이라고 하대적인 대명사를 쓴 점으로 보아
작자는 나인이라고 보다는 인목대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30]

<계축일기>는 내용을 살펴보면 작자가 광해군을 지나치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 나인들을 종이라고 부르고 상궁들을 부를 때 성씨만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인보다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할 수

29) 민영대, 『조선시대 궁중소설 연구』, 역락, 2004, pp.47~55.
30) 김용숙, 『이조여류문학 및 궁중풍속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70, p.150.

있다. 그래서 작자를 인목대비나 정명공주로 볼 수 있는데, 인목대비가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쓴 글이지만 서술자를 나인으로 설정하여 하여 지었을 것이라고 보아 인목대비를 작자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목대비가 썼다고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광해군과 왕비를 술회문에서 자주 사용한 역괴(逆魁)나 적조(敵朝)라고 하지 않고, 대전·내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31] 또한 명문 양반가의 규수였다가 한 나라의 국모가 되었고, 대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이 사용하기 힘든 저속한 표현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런 표현을 글이라고는 하지만 인목대비가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이 작품에는 나인이나 상궁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수많은 나인들을 거느리고 있던 인목대비가 자신의 수발을 들어주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성씨가 아닌 그 이름까지 모두 알고 있기는 어렵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오랜 세월동안 겪었던 아픔과 시련, 고초를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것인데 그 기억을 되살려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계축일기>의 작자를 총명하고 뛰어난 문장력을 갖추었던 정명공주가 훗날 당시의 일을 회고하며, 인목대비가 쓴 글과 당시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인목대비를 모셨던 나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썼다고 보고 나인은 서술자의 위치로 작품에 등장한 것이라고 본다. 정명공주는 선조의 첫째 공주로 11명의 딸 중 유일한 공주로 선조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6세 때 선조가 승하하고 11세에 인목대비와 함께 서궁에 유폐되어 21살에 풀려 나오게 된다. 남구만의 『약천집』 제 27권의 정명공주의 필적에 대한 발문 신사년(1701, 숙종 27)을 보면,

> 정명공주가 서궁에 유폐되어 있을 때 슬프고 분하며 두렵고 조심하는 가운데 할 일이 없었으므로 붓을 잡고 글씨를 써서 대자(大字: 큰 글자)와 소자(小字: 작은 글자)를 썼으니, 이는 모두 자성(慈聖 인목대비)의 마음을 위로하고 풀어드리기 위한 것이었다.[32]

---

31) 김일근, 「계축일기 신고」, 『국어국문학』 제 55-57권, 국어국문학회, 1972. p.145.
32) 남구만, 『약천집』 제27권 정명공주필적발, 성백효 옮김, 민족문화추진회, 2004.

라는 기록이 있다. 위의 기록을 보면 정명공주는 효심이 강했음을 알 수 있고 <계축일기>도 정명공주가 인목대비를 위로하기 위하여 썼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정명공주의 친필시첩인 <자위수택>을 보면 공주의 의지와 문필이 대비에 못지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서법은 인목대비의 어필과 닮았음을 알 수 있다.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서궁에서 소수의 나인들과 인목대비와 함께 생활했던 정명공주는 인목대비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문장력과 학식이 뛰어났다. 또한 누구보다 인목대비의 처지와 심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직접 광해군측의 핍박을 받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계축일기>를 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인물인 셈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비속어는 정명공주가 작품을 쓸 때 인목대비를 모셨던 나인들의 증언을 기록해 두었다가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대로 나인들의 표현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인조반정을 통하여 정권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궁중의 일을 소상히 적고 당시의 일들을 세상에 알린다는 것은 높은 신분인 정명공주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쓴 글의 말미에 '나인들이 잠깐 기록하노라.'라는 부분을 넣어 작자를 드러내지 않고 마치 어떤 이름 모를 내인이 글 전부를 쓴 것처럼 기술하였다.

Ⅲ. <계축일기>의 구조

1. 시간의 변화 구조

소설에서 시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존재를 이동시키며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작품에서는 작가가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는지에 따라 기준이 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본고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삼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계축일기>는 사건 발생의 순서에 따라 기술하는 순차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즉, 고전소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서술하는 연대기적 구성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를 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다가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삽입하거나 미래의 일을 사전 제시하며 연대기적 질서를 깨뜨리고 서사의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소설에서 시간의 변화는 소설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계축일기>도 과거의 이야기를 소급제시하거나 미래의 일을 사전제시 하면서 단순한 구조에서 벗어나게 하며 작자의 창작의도를 드러내는 효과를 가져온다.

<계축일기>는 권지일과 권지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지일은 계축년 동짓달에 중환이 개시에게 대비가 광해군을 저주하는 경을 읽었다고 음해하는 부분까지이며, 권지이는 그 이후부터 신유·임술년에 일어난 기특한 일까지의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실제 있었던 일들로 이런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서사적 구조로 되어있다.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시간적 구조로 되어있지만 일방적인 시간적 순서에 따르지 않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입체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고전소설은 인물이 태어나서 성장하며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극복한 후 행복한 결말을 맺는 순차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계축

일기>는 현재가 먼저 서술이 되다가 부분적인 과거 회상으로 돌아간 후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야기가 진행되거나 미래의 일을 현재에 미리 보여주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계축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시간에 따라 사건이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만력 임인년에 중전이 아기 계오시다 듣고 유가가 낙태하실 일을 하노라
(2) 계묘년에 공주를 탄생하오시니, 분발 가져간 자가 오전하여 대군이라 듣고 대답지 아니하다가, 공주 나시다 듣고 무엇 주더라 하니, 더불어 미워함을 알리러라.
(3) 병오년에 대군 나시다 듣고 유자신 집에서 머리 싸 용심하며, 적자가 나시니 동궁 위위태하면 하여, 동궁 권신과 정인홍이 사괴여서,
(4) 갑지년에 광해군을 봉세자 할 일을 표문에 간측히 지어 올리니, 천조가 그 적은 회뢰 행치 못하며 조정이 정답고 황제 엄하신지라 성지 무한 엄하시고 식식하사,[33]

위의 (1)은 선조 35년, (2)는 선조 36년, (3)은 선조 39년의 이야기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4)는 선조 37년의 일로 과거의 사건이다. 이것은 작자가 의도적으로 (3)과 (4)의 위치를 바꾸어 서술하면서 단순한 시간의 나열이 아닌 구조의 변화를 주고 있다. (1)~(3)에서 드러나지 않던 광해군의 측근들이 한 행동의 원인을 (4)에 제시하면서 독자들이 작품에 더욱 몰입하도록 하고 있다.

(5) 전교 하오시고 드디어 흥하오셔늘, 즉시 멈추지 아니하고 세자와 빙을 침전에 들여 계자와 새보와 마패 등 이렇듯 중대한 것들을 즉시 도라보내고,
(6) 정미년 십월 불평시에도 동궁이며 빙을 즉시 불러 시측에서 시약하옵게 하며, 불민하여 성의에 어기온 일이 있어도 내전으로 겨오샤 사이에서 좋도록 꾸려가니
(7) 후궁의 족하를 의인왕후 빙전 적에 다려다가 첩 삼아 가려 하거늘, …(중략)… 협칙하야 내인을 보내어 아사가니,
(8) 정인홍 등은 적소에 채 가지 아니하여서 홍서하오신 날 즉시 궐하에 불러 불차로 용

33) 정은임 교주, 『계축일기』, 이회문화사, 2005, pp.23~25.의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만 인용한 것임.(이하 <계축일기>의 지문은 이 책을 인용하고 이하 교주본이라 표기하겠음.)

지하고,[34]

(5)는 선조의 승하와 광해군의 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명시적으로 시간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 기록[35]을 볼 때 무신년(선조 41년)에 있었던 일임을 알 수 있다. (6)은 선조 40년에 있었던 사건이며, (7)도 시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의인왕후의 빈전이므로 선조 33년임을 알 수 있다. (8)은 선조 승하 직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선조 41년의 일이다. 그러므로 (6)에서 과거로 한 번 소급했고, (7)에서 또다시 과거로 소급하여 서술 한 후 (8)에서 현재로 돌아와 서술하고 있다. (6)과 (7)은 바로 앞과 뒤에 오는 (5), (8)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작품의 전체 내용으로 보았을 때 주된 갈등의 대상이 되는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성품을 대비시켜 앞으로 글의 진행 방향을 암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9) 삼시 문안을 잘 드는 체하더니 점점하여 삭망으로 들고 그도 연고 있으면 궐하고, 든 때도 예사 말씀이나 일가의 은휘아녀 하오시면 말씀을 차혀 듣도 아니하고,

(10) 대왕 빙천하오신 후 삼칠일 만에 문안드니 상시 벗의 조상도 처음 만나면 곡읍함이 예사이거늘, 우히 애곡 하오시니 드리다라며 손 내어 헤저으며 시위인더러,
"우지 마라시게 하라." 하고,

(11) 자전이 초상에 배릉하오시는 예 있으매 우흐로서, "니거지라." 하오시니,
대왈 "가심이 불가하니이다." …(중략)… 삼 년을 두고 간측이 비다가 못하고 달래다가 못하오시니,

(12) 정미년 시월부터 불평하오시되 세자가 녀차에 와 시약하옵더니, …(중략)… 빙천하오신 후에 닐오되, "겨울에 찬데 앉았던 일이야 죽다 잊으랴." 하더라.

(13) 빙측에도 한 달에 한 번식 가락말락 애척이 아조 없어, 상복 중에 우음이 자약하고,
…(중략)… 우히 빙측에 와 곡읍을 그치지 아니 하오시니, …(중략)… "듣기 슬타." 하니,

(14) 공사를 하 못하여 한 장 것도 친히 결치 못하여 내전을 녀차 결익낭방에다가 두고 주야에 공사를 물어 결하니, …(중략)… 명종조 늙은 내관이 있더니 당돌히 들어가 살오되,
…(중략)… "이만 공사를 못하셔 사람 없이하고 고요히 앉아계셔 칼과 조희를 가지고 무사 일을 하시난고."하니, …(중략)… 이 말이 튓튓나니 이 내관을 미워하더니 대군란에

34) 교주본, pp.27~32.의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만 인용한 것임.
35) 『선조실록』, 선조 41년 무신 (1608, 만력36) 2월 1일의 기록을 보면 선조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있다. 광해군의 즉위도 『광해군일기』, 광해군 즉위년 무신 (1608, 만력36) 2월 1일에 기록되어 있다.

죽이니라.

(15) 처음 말이라 순이 듣고 용한가 하더니 점점하여 박대 심하고 경술·신해년 사이는 더욱 심하여 불공함이 심터라.[36]

위의 내용은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것이다. (9)~(13)까지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다가 (14)에서 현재와 미래의 일을 같이 서술한다. 광해군이 즉위하던 해인 무신년에 내관이 광해군의 무능력함을 비웃었는데 대군난인 계축옥사에 내관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미래의 일을 사전 제시한 것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서술의 시점이 바뀐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15)에 와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 기술한다.

이처럼 <계축일기>는 대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서술되는 순차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과거로 소급하여 기술하거나 미래의 일을 기술하여 구조가 단순화되는 것을 막고 작자의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작품이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작자에 의해 재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2. 선과 악의 대립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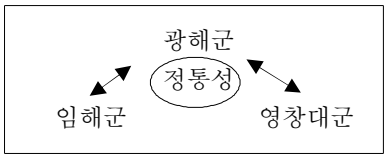
<계축일기>는 대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된 작품이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면 광해군의 즉위, 임해군 역모사건, 계축옥사, 서궁 유폐 등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여기에서 시간의 제시는 독자들에게 실제 있었던 사실임을 부각시켜 소설의 진실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며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계축일기>에 나타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에 나타나는 주된 갈등과 그 갈등의 해소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계축일기>의 주된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고,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갈등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6) 위의 내용은 교주본, pp.34~47.의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만 인용한 것임.

갈등은 두 개 이상의 이질적인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여 부조화를 이룰 때 발생한다. 갈등은 그것을 이루는 인자들이 투쟁하고 대립, 대결하면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문학 작품 안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처럼 개인의 감정이나 성격과 같은 내부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등과 같은 다른 개인이나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계축일기>에서는 갈등이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정통성을 갖지 못한 광해군과 다른 왕자들의 갈등, 절대 권력을 사이에 둔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대립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은 유교를 중시하는 나라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장자의 의무이고, 상속도 장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였다. 이러한 조선시대에 태어난 광해군은 선왕의 장자도 아니었고, 적통대군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결여되었다. 광해군이 선조의 정비 소생이었다면 비극의 가능성이 적었겠지만 후궁의 소생이었다. 후궁의 소생이라도 왕의 장자였다면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왕이 되었겠지만 불행하게도 후궁의 둘째아들이었다. 따라서 적서의 문제에서 비롯한 정통성의 문제가 작품의 갈등을 야기하는데 큰 비중으로 작용한다.

광해군은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명의 인물과 대립하는데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임해군은 선조의 장자라는 명분을 가진 인물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세자 책봉이 시급한 시기에는 영창대군이 탄생하지 않았기에 왕위 계승 서열1위였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세자로 책봉되지 못했다. 광해군의 친형이자 선조의 장남이기는 했지만 그 인물됨에 있어서 광해군보다 부족했고, 선조의 신임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정 대신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했고 인품 또

한 좋지 못하였다. 이런 연유로 선조는 임해군이 아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다. 이때부터 광해군과 임해군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광해군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 명나라에서 장자를 두고 차자를 세웠다는 일로 문제를 삼자 정통성이 결여된 인물인 광해군은 자신의 자리에 위협을 느꼈고 불안감도 느꼈다. 이 과정에서 광해군과 임해군의 갈등이 심화된다. 이러한 광해군과 임해군의 갈등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임해군을 역모의 죄를 씌어 죽이는 것으로 표출된다.

> 빙천하오신 이칠일 만에 형을 외척으로 두 대간하여 논계하게 하여 놓고, 임해(臨海)를 보고 계사를 뵈여 왈,
> "이제 나가면 죄를 벗고 궐중(闕中)에 있으면 죄 더을 것이니 내 몰라 이를가, 수이 나가소."
> 하고 군병(軍兵)을 포열은복 하였닷더라.
> 임해 꾀에 감겨 즉시 나가니, 일시(一時)에 내달아 두로 싸매어 비변사에 구류하여 두었다가 교동에 보내어 우리안치 하였더니, 어사당인이 오니 임해더러 닐오되,
> "전신불수한 체하여야 처자와 한데 두고, 니란 대로 아닌 즉 죽이리라."
> 하고, 공빈 사촌 오라비 김예직을 보내어 은근히 달래니 곧이 듣고 니란 대로 한 대, 당장이 돌아간 후 즉시 심복(心腹)의 의원을 보내어 치독하여 죽이니라.[37]

<계축일기>에서는 광해군과 임해군의 사이의 갈등을 광해군이 임해군을 죽이는 것으로 해소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즉, 죽음으로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정통성에서 야기된 갈등은 광해군과 영창대군 사이에도 나타난다. 영창대군은 왕과 왕비의 자식으로 적자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선조의 지지를 받았다. 명종이 후사 없이 죽자 덕흥대원군의 셋째아들이었던 선조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 역시 왕의 적통대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상 정통성에 신경을 썼다. 적통대군인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고, 광해군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래서 광해군에게는 영창대군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인물로 다가왔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갈등은 광해군이 임

37) 교주본, pp.32~34.

해군의 역모 사건에 영창대군을 연루시키려 한 것으로 표출된다.

> "임해군이 자식이 없으니 임해군으로 세자를 삼아 대군을 전케 하려 하신다."
> 운풍을 내어,[38]

위의 인용문처럼 광해군은 거짓 소문을 내어 영창대군을 역모에 연루시켜 죽이려 하지만 영창대군이 아직 나이가 어렸고, 즉위 하자마자 형제들을 연달아 죽인다면 민심이 혼란해질 수 있었기에 임해군을 먼저 죽인다. 그리고 즉위 5년 후에 계축옥사를 일으켜 그 주모자가 영창대군이라 하여 영창대군을 폐하고 강화로 유배시킨 후 죽인다. 광해군은 세자시절 이미 대북파를 배경으로 한 동궁으로서의 탄탄한 위치를 잡고 있었다. 선조가 승하하며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는 유교를 남겼고, 영창대군과 광해군의 나이차이가 대략 서른 살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영창대군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영창대군이 성장한 뒤, 정통성을 이유로 그의 왕권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하는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결국 영창대군을 죽인다. 광해군과 영창대군 사이의 갈등도 역시 죽음을 통하여 해소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처럼 <계축일기>는 정통성에서 야기된 인물간의 갈등이 죽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해소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계축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은 절대 권력을 사이에 둔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대립이다. 작품에는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갈등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인목대비가 광해군의 절대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인목대비는 서열상으로 광해군위 윗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광해군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다. 또한 정적인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광해군은 인목대비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계축옥사를 일으켜 인목대비의 측근들을 제거하고, 희망이던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서궁에 유폐시켜 인목대비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지한다.

<계축일기>는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갈등을 선악의 대립구조로 구분하여 표현한

38) 교주본, pp.24~25.

다. 광해군은 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목대비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하고 절대권력을 위해 대립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표면적으로는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갈등구조로 되어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을 지지하는 인물들 간의 갈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도식화 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선		악
인목대비	↔	광해군
소북파		대북파
변상궁과 나인들		김상궁(가히)과 나인들

인목대비와 소북파, 변상궁과 인목대비를 모시는 나인들은 선을 대표하는 인목대비와 운명을 같이한다. 악을 대표하는 광해군과 대북파, 김상궁과 광해군을 모시는 나인들의 핍박에 일방적으로 당하며 선과 악이 대립하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인목대비를 선을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하고 광해군을 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하여 그들의 갈등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인목대비측과 광해군측의 대립은 영창대군이 탄생하면서 시작된다. 광해군은 왕의 적자가 아닌 선조와 후궁이었던 공빈 김씨에게서 태어난 인물로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혼란 속에서 나라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선조 25년에 세자로 책봉된다. 왕과 왕비의 소생인 적자 왕자가 태어난다면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세자 자리도 위태롭고 왕위 계승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선조 39년에 영창대군이 태어난다. 그래서 유자신을 중심으로 한 광해군측에서는 영창대군을 없애기 위한 온갖 술책을 모색하고, 유영경을 중심으로 한 인목대비측에서는 영창대군을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한 두 세력의 대립이 야기된다.

선조가 갑자기 승하하며 광해군이 즉위하자 광해군을 지지했던 대북파가 권력을 갖게 되고,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던 소북파는 세력을 잃게 된다.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절대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제거해나간다. 친형이었던 임해군이 역모를 꾀하였다고 하여 강화로 유배를 보내고 곧이어 사사하는데 이것은 임해군이 자신의 왕권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있어서였기도 하지만 굳이 역모의 죄를 뒤집어씌운 것은 광해군이 자신의 정적인 영창대군을 제거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임해군을 역모 혐의를 들어 죽인 것은 영창대군 또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작품에서 드러난 것처럼 광해군측은 임해군이 역모를 꾀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았다가 뒷날 계승시키려 한다고 소문을 내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은 광해군과 영창대군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창대군은 어린아이이고 아직 정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실상은 광해군과 영창대군의 후원자이자 지지자인 인목대비와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악을 대표하는 인물인 광해군은 절대권력을 위해 선을 대표하는 인물인 인목대비를 계속해서 핍박한다. 계축옥사는 계축년 4월 박응서가 조령에서 은상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사건을 이이첨의 사주를 받은 박응서가 '국구 김제남이 영창대군을 추대하기 위한 역모를 준비한다'고 거짓 고변을 한 사건이다. 계축옥사로 인하여 국구인 김제남과 대비의 동생들이 사사된다. 광해군은 자신의 절대권력을 위해 인목대비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이어서 유릉방정 사건이 일어나는 데 선조가 병들었을 때 그 책임이 공빈에게 있다는 어느 무당의 말을 듣고 내인 몇 명이 공빈의 묘소를 저주할 방법을 모의하였는데 그 말이 누설되어 임해군이 하인을 시켜 공빈의 능을 지키게 하였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박동량이 공을 세워 볼 심산으로 그 사건의 주모자가 영창대군을 모시던 나인의 소행이라 하여 서궁의 나인들을 잡아다가 죽인 사건이다. 인목대비의 주변 인물들이 화를 당함으로써 인목대비의 세력이 거의 사라지고 인목대비와 광해군의 갈등이 심화된다. 광해군측이 계략을 꾸미고 모략하면서 인목대비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절대권력을 강화한 것이다. 인목대비와 광해군의 갈등이 가장 심화되는 부분은 인목대비가 삶의 희망인 영창대군과 사별한 것이다. 광해군은 영창대군이 화근이라 하여 신하들을 핑계로 하여 궁궐 밖으로 내쫓고, 그 작위를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고 강화로 유배를 보낸 후 사사한다. 인목대비도 서궁에 유폐시켜 광해군의 절대권력에 위협을 가하지 못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인목대비는 광해군을 원망하는 마음이 커지고 광해군은 인목대비가 죽기만을 바라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된다. 이러한 갈등의 해결은 의외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인조반정

이 일어나 인목대비가 긴 유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광해군과 인목대비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

<계축일기>에서의 갈등은 넓게 보면 선과 악의 대립 구조로 되어 있지만, 작품의 내용을 보면 선을 대표하는 인목대비가 악을 대표하는 광해군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인목대비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죽고 하나 밖에 없는 영창대군과도 사별하고, 곁에 있던 나인들마저 하나 둘씩 죽음을 당하고 본인도 서궁에 유폐되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하늘의 도움을 받아 삶을 연명하게 되고 결국 외부에 의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계축일기>는 정통성 문제에서 갈등이 파생했고 권력자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권력자가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대부분 죽음이다.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절대 권력을 확보하고 유지시킨다. 작품에서 가장 큰 갈등의 축을 형성하는 인목대비와의 갈등은 죽음을 통하여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켜가고 결국 이들이 행한 악은 선이 악을 응징하면서 해소된다.

Ⅳ. <계축일기>에 나타난 허구성

1. 실사와 허구적 서사

<계축일기>는 장르가 소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였지만 작자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허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계축일기>의 축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을 역사적 사실과 비교하여봄으로써 작품에 나타난 허구성을 살펴보고 작자의 의도까지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계축일기>의 주요 사건은 광해군의 즉위, 임해군의 역모사건, 계축옥사, 영창대군의 죽음, 인목대비의 폐위, 서궁 생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광해군의 즉위

광해군의 즉위는 <계축일기>에서 등장인물들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을 제공하는 사건이다. 광해군의 즉위에 관한 광해군 일기의 기록과 작품의 기술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 내전이 전교하기를,
> "국사는 잠시도 비워서는 안 되는 것이니, 계자(啓字)를 동궁에게 전부(傳付)하여 제반 일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하니, 대신이 회계하기를,
> "전교가 지극하시니, 이는 국가의 복입니다."
> 하였다.
> 내전이 전교하기를,
> "어보(御寶)와 계자를 아울러 동궁에게 전부해도 되겠는가? 어보를 전부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가?"
> 하니,[39]

위에서 보듯이 광해군일기에는 인목왕후가 스스로 어보와 계자를 동궁에게 전한 것으로 처음부터 광해군이 왕위를 받도록 했고, 신하들과 별다른 대립 없이 광해군의 즉위가 이루어 졌다고 서술되어 있다. 인목대비도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즉시 멈추지 아니하고 세자와 빙을 침전에 들여 계자와 새보와 마패 등 이렇듯 중대한 것들을 즉시 도라보내고, 세자와 제자에게 하오신 유교를 후궁이 하되,
> "대군(大君) 향하야 하오신 유교를 내어 이때에 한가지로 내오소서."
> 하거늘, 중전으로 겨오샤 불성인사 하오사,
> "그 유교는 이제 가(可)치 아니타."
> 만 하시되, 중의 세워 내되 제자를 먼저 뵈고 조정에 내닫더라.
> 이리한 것을 이 유교 내다 하고 큰 허물을 삼으니, 진실로 대군을 세우랴 하면 대권(大權)이 장중(掌中)에 이신 제 올리지 새보를 내어 베풀 사이 없이 세자의 전(殿)으로 즉시 보내시며 또 유교에,
> "참뫼있어도 신참치 말고 대군을 어엿비 여기라."
> 하오신 말씀이거늘 어찌 유교대로 대군 세울 일이 있으리오.[40]

그러나 작품에서는 광해군의 측근들이 인목왕후가 광해군이 아닌 영창대군을 왕위에 올리려 한 것으로 모함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작자가 인목왕후의 입장에서 인목왕후는 영창대군을 왕에 세우려 하지 않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즉, 작품에서는 인목왕후가 광해군을 왕에 세우려 하자 않는 것은 주변의 모함이라고 하여 작자가 인목대비를 두둔하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자가 인목대비의 입장에서 작품을 기술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실제와 다르게 허구화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② 임해군의 역모사건

임해군의 역모 사건은 광해군이 즉위하자마자 상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형인

39) 『광해군일기』 31집, 광해군 즉위년 무신 2월 1일, 민족문화추진회, 1992, p.259.(이하 『광해군일기』의 지문은 이 책을 인용함. 이하 광해군일기라고 표기하겠음.)
40) 교주본, p.30.

임해군에게 역모 혐의를 씌워 죽게 한 것이다. 광해군 일기에 나타난 임해군의 역모 사건에 관한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령 윤양, 지평 민덕남, 헌납 윤효선, 정언 이사경·임장 등이 아뢰었다.

"임해군 이진(臨海君李珒)은 오랫동안 이심(異心)을 품고서 사사로이 군기(軍器)를 저장하고 몰래 사사(死士)를 양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행 대왕께서 미령하실 때부터 역당(逆黨)들을 많이 모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많은 명장(名將)들과도 교결하여 무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주야로 은밀히 불궤(不軌)스런 짓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나라 사람들이 다같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승하하는 날에 이르러서는 발상(發喪)하기 전에 공공연히 그의 집에서 나갔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달려 들어왔으니, 그 정적(情迹)이 비밀스러워 가병(家兵)을 지휘한 정상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영조(營造)하는 것을 가탁하여 철퇴(鐵椎)·환도(環刀)를 빈 가마니에 싸서 많은 숫자를 들여 갔으니, 헤아릴 수 없는 화가 금방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宗社)를 보존시킬 대계를 위하여 속히 대신과 병조로 하여금 조속히 처치(處置)하게 하여 절도(絶島)로 유배시킴으로써 성상께서 우애(友愛)하는 지극한 정을 온전히 하고 중외 사람들의 의구해 하는 마음을 안정시키소서."

"국가가 불행하여 이런 공의가 유발되었으니, 동기(同氣) 사이에 조처할 바를 몰라 그저 스스로 통곡만 할 뿐이다. 선왕의 유교(遺敎)가 정녕하게 귀에 남아 있으니 내가 차마 저버릴 수 없다. 원컨대 대신들은 상의하여 선처함으로써 힘써 우의를 보존할 수 있는 계책을 강구하여 주었으면 더없는 다행이겠다. 〈이런 내용을 대신에게 이르라〉."

장령 윤양, 지평 민덕남, 헌납 윤효선, 정언 이사경·임장이 아뢰었다.

"임해군 이진을 이미 도성 밖에다 내어 보내어 유치시키기는 하였습니다만, 무뢰한 흉도(凶徒)들이 중외에 널려 있으니 뜻밖의 불측한 변이 더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지친(至親)이라는 사정(私情) 때문에 고식적으로 용서하여 주어 뒷날 후회가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속히 절도에 유찬시키라고 명하소서."[41]

임해군(臨海君)을 위소(圍所)에서 죽였다. 임해군이 위장(圍墻) 안에 있을 때 다만 관비(官婢) 한 사람만이 그 곁에 있으면서 구멍으로 음식을 넣어주었는데, 이때 이르러 수장

41) 『광해군일기』 31집, 광해군 즉위년 무신 2월 14일, p.265.

(守將) 이정표(李廷彪)가 핍박하여 독을 마시게 했으나 따르지 않자 드디어 목을 졸라 죽였다.[42]

광해군일기에서 임해군의 역모 사건은 위에서 보듯이 장령 윤양, 지평 민덕남, 헌납 윤효선, 정언 이사경·임장 등의 상소에서 시작한다. 그러자 광해군은 임해군을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한다. 그러다 신하들의 상소가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임해군을 유배시키도록 명한다. 임해군의 죽음에 관해서도 광해군일기에는 수장 이정표가 죽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계축일기>에서는 광해군이 직접 임해군을 죽이고자 신하들에게 거짓 상소를 올리게 하여 역모의 죄를 씌워 죽인 것처럼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빙천하오신 이칠일 만에 형을 외척으로 두 대간하여 논계하게 하여 놓고, 임해(臨海)를 보고 계사를 뵈여 왈,

"이제 나가면 죄를 벗고 궐중(闕中)에 있으면 죄 더을 것이니 내 몰라 이를가, 수이 나가소."

하고 군병(軍兵)을 포열은복 하였닷더라.

임해 꾀에 감겨 즉시 나가니, 일시(一時)에 내달아 두로 싸매어 비변사에 구류하여 두었다가 교동에 보내어 우리안치 하였더니, 어사당인이 오니 임해더러 닐오되,

"전신불수한 체하여야 처자와 한데 두고, 니란 대로 아닌 즉 죽이리라."

하고, 공빈 사촌 오라비 김예직을 보내어 은근히 달래니 곧이 듣고 니란 대로 한 대, 당장이 돌아간 후 즉시 심복(心腹)의 의원을 보내어 치독하여 죽이니라.[43]

작품에서는 광해군이 직접 임해군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하들을 시켜 상소문을 올리게 하고 그 죄를 물어 임해군을 궁궐 밖으로 쫓아냈다가 비변사에 구류하여 둔 후 교동에 유배 보내고 심복을 보내 죽인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임해군의 죽음에 광해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광해군을 악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하여 서술하고자 하는 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사

42) 『광해군일기』 31집, 광해군 1년 기유 4월 29일, p.426.
43) 교주본, pp.32~34.

실과 다르게 허구화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광해군을 자신의 친형인 임해군까지 죽인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는 무도한 인물인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 즉, 광해군을 악한 인물로 묘사하려고 한 작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임해군과 관련된 사건이 실제와는 다르게 서술된 것이다.

③ 계축옥사

계축옥사는<계축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작품의 창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광해군 5년 4월에 서자 출신인 박응서·서양갑·심우영 등이 문경새제에서 일으킨 살인강도 사건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역모로 탈바꿈하면서 커다란 옥사로 발전한 사건이다. 단순한 강도 사건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기 위해 조작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좌변 포도 대장 한희길(韓希吉)이 아뢰기를,

"지난 달에 조령(鳥嶺) 길목에서 도적이 행상인을 죽이고 은자(銀子) 수백 냥을 탈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적괴(賊魁)인 서얼(庶孽) 박응서(朴應犀)는 도망갔고 도적 허홍인(許弘仁)의 노비 덕남(德男) 등을 체포했는데, 형장(刑杖)을 한번 가하기도 전에 낱낱이 자복하였습니다. 같은 패거리 몇 명이 외방에 있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여, 현재 계책을 써서 끝까지 체포하려고 하는 중인데, 먼저 은냥을 찾아내어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미 자복한 적괴는 해조에 이송해야 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포도청은 병조·형조의 당상과 회동하여 엄히 신문해 사실을 알아내고 같은 패거리 역시 하나하나 상세히 조사해낸 뒤 아뢰어라."

하였다.【구제(舊制)를 보건대 포도청에서 자복한 죄인은 계사(啓辭)를 올린 다음 형조에 이송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처럼 특별히 분부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비밀 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사건이 발각되었을 때 박응서만 혼자 집에 있다가 체포되어 맨 먼저 자복하였다. 그리하여 형조로 이송한 다음 정형(正刑)에 처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응서가 옥중에서 상소하여 고하기를

"우리들은 천한 도적들이 아니다. 은화(銀貨)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반역하려 하였다."

고 하였다.【응서가 처음 갇히게 되었을 때 사대부들 가운데 혹 "이 사람들은 모두 명가의 자제들인 만큼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하며 구해 주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대장(大將) 한희길(韓希吉)도 주저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중략… 그런데 도적에서 역적으로 변모된 것은 바로 이이첨의 작품이다." 하였는데, 이이첨 역시 이것을 가지고 자부하며 누차 장소(章疏)에 드러내곤 하였다. 이이첨은 본래 응서의 패거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그저 한희길을 통해 그 옥사의 정상을 얻어 들었을 뿐인데, 고변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스스로 공이 있다고 한단 말인가. 그가 응서를 유도해 역옥(逆獄)을 얽어 만든 자취야말로 숨기기 어렵다 하겠다.】44)

역사 기록을 보면 박응서 등의 살인 강도는 자백이 있었으므로 형조로 보내면 되는데 광해군이 친히 상세히 조사하라고 전교를 하니 사전에 광해군에 이 사건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응서도 자신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반역을 준비했다고 자백했고, 지문 말미에 보면 이이첨이 이 일을 꾸몄음을 알 수 있다. 즉, 계축옥사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조작된 사건이다. 역모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물증이 없이 거짓 고변만으로 일이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다. 작품에서도 계축옥사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다.

사월로서 유가·이이첨·박승종 등 심복과 도모(圖謀)하며, 방정지사로 소계 할 마대에 은(銀) 도적 박응서 포도청(捕盜廳)에 개개히 복초하니, 결안 다짐받아 결의(決議) 낼 것이어늘, 유(柳)·박(朴)·이(李) 삼적이 포도대장 지주하여 죽이고 죄수는 도록 가도고 이리이리 하라 맞추니, 그 도적이 제 살 억탁으로 일종 지휘대로 상소한데, 사월 스무엿샛날 상소든데 즉시 고면이라 선성내고, 적도(賊徒) 응서가 탑전에 가르쳐 가며 묻는 말이,

"네 김 부원군 집에 갔던다? 네로라 하면 살리라."

대 왈,

"살기는 중(重)하오나 부원군은 모라나이다."

대군도 니라라 하거늘,

"한 부원군이 무엇이 귀하여 아니 묻더라 하리이까? 그 집 문도 모라나이다. 아모리 살오

44) 『광해군일기』 32집, 광해군 5년 계축 4월 25일, p.163.

려 하시다 모르는 사람을 어찌 거덜니잇까? 대군도 우리 부원군 올니란 말이지 부원군도 알 배 아니니이다. 남의 애매한 말을 하리이까?"

하되, 저의 어버이 다 잡아다가 극형하니, 혹 어미 앉히고 아들 치며, 아들 앉히고 어미 동생 치듯 갖가지 극형을 하며, 서로 뵈며 치되 그것들이 잔잉한 소래로 서로 보며 어미는,

"아들아, 무복하여 날 살와라."

하면,

"아모리 어버히 중하여 살오고저 한들 거짓말을 하여 나도 섧거든, 남에게 미뤄 어대다가 그 끝을 다히리오."

하며, 자식이 어버이를 보채면 하되,

"자식이 중타 하고 언근 없은 말을 내 어찌 갈모리."

하여, 이대로 생소히 굴다가 양갑이는 어미 극형 하여 죽은 후에, 문사낭청이 계하로 자로 오르나려 말하더니 그 후는 남의 말 하듯하되,

"부원군도 아나이다."

하니,

"네 그 집에 가니 어찌 하더니?"

대답하되,

"가니 술 내어 먹이더이다, 역모 할시 옳으니이다."

저는 정형하나 제 아비의 무덤 파기는 아니하고 아들 살오니, 그 언약(言約)을 하노라 귀에 다혀 무복 밧닷더라.[45]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계축옥사는 단순한 살인 강도 사건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작품속의 내용에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건이 조작되는 과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권진이 아뢰기를,

"치료한 의원의 말에 의하면 죄인 심우영의 장독(杖毒)이 위로 치솟고 있다 합니다."

하고, 대사헌 최유원이 아뢰기를,

"신의 의견으로는 그가 아직 죽기 전에 엄히 국문하여 사실을 알아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따랐다. 왕이 이르기를,

45) 교주본, pp. 56~58.

"낙형(烙刑)을 가하기 전에 바른 대로 사실을 말하면 형을 느슨하게 해 주겠다는 뜻으로 우영에게 말하라."

하였는데, 우영이 낙형을 받고도 승복하지 않았다. 왕이 이르기를,

"한 번 더 불로 지져라."

하였는데, 또 승복하지 않았다.[46]

위의 실제 사건을 보면 계축옥사를 역모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모진 고문을 당하여 죽어가는 사람에게까지 또 고문을 할 정도로 가혹했는데, 앞 장의 작품의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덜 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작자가 서궁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고문의 형장을 보지 못했고, 고문하는 소리와 자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썼기 때문이다.

④ 영창대군의 죽음

계축옥사로 김제남이 사사되자 조정에서는 영창대군을 법대로 처형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어난다. 그러자 광해군은 아래와 같이 답한다.

대신 등이 이의를 처치할 것을 계청하니, 답하기를,

"차마 따르지 못하겠다는 뜻을 이미 모두 유시하였으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중략)… 재차 아뢰니, 답하기를,

"이의는 어린 아이인데 아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불측한 계책은 실로 김제남 등에게서 나온 것으로 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논집하고 있는 공론도 엄한 것이니 단지 그의 봉작(封爵)만 삭탈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략)… 양사가 합계하여 이의에 대한 일을 청하니, 답하기를,

"내 뜻은 이미 모두 말하였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재차 아뢰니, 답하기를,

"이미 나의 뜻을 유시하였다. 억지로 쟁집하지 말라."

하였다. 세 번째 아뢰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47]

---

46) 『광해군일기』 32집, 광해군 5년 계축 5월 1일, p.167.

종친이 통쾌하게 공론을 따르라고 계청하니, 답하기를,

"이미 봉작을 깎고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재차 아뢰니, 이미 유시하였다고 답하였다. …(중략)… 금부에 전교하였다. …(중략)… 공론이 지극히 엄하고 여정(輿情)이 날로 격렬해지고 있으니, 읍호(邑號)를 깎는 것만으로는 그 죄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없고 공론을 신장시켰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의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어라."[48]

윤중삼(尹重三)이 아뢰기를,

"역적 이의를 내보낼 집을 성 밖에다 정할 것입니까, 성 안에다 정할 것입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성 안에 넓은 집을 가려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략)… 삼사가 번갈아 소를 올리고 백관들이 합문 앞에 엎드려 청하고 선비들이 항의하는 소를 올리고 백성과 군인들이 정성을 다하여 모두 말하기를 '한 시각이라도 궁중에 태연히 있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공론은 매우 엄하고 사람들의 분노는 날마다 격렬해지고 있으니, 지금 그를 여염의 집으로 내보내 공론에 보답하도록 하라."[49]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의를 마땅히 역적 이진(李珒)을 처벌했던 예에 의거하여 교동(喬桐)에 안치시키는 것이 합당할 듯한데, 어떤 사람은 강화(江華)가 마땅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강도(江都)로 옮기는 것이 편할 듯하다."[50]

강화 부사(江華府使) 정항(鄭沆)이 영창 대군 이의(永昌大君李璘)를 살해하였다.【정항이 고을에 도착하여 위리(圍籬) 주변에 사람을 엄중히 금하고, 음식물을 넣어주지 않았다. 침상에 불을 때서 눕지 못하게 하였는데, 의가 창살을 부여잡고 서서 밤낮으로 울부짖다가 기력이 다하여 죽었다.】[51]

---

47)『광해군일기』32집, 광해군 5년 계축 5월 21일, p.184.
48)『광해군일기』32집, 광해군 5년 계축 5월 30일, p.193.
49)『광해군일기』32집, 광해군 5년 계축 6월 21일, p.209.
50)『광해군일기』32집, 광해군 5년 계축 7월 26일, p.231.
51)『광해군일기』32집, 광해군 6년 갑인 2월 10일, p278.

위의 내용은 광해군일기에 실린 것으로 영창대군이 궁궐에서 나가고 유배된 뒤 죽게 되는 과정이다. 광해군은 인목대비에게 영창대군을 궁궐 밖으로 내보내 주라고 여러차례 간청한다. 그러나 이것은 조정 대신들의 뜻이었고, 광해군은 영창대군의 봉작을 삭탈하고 성 밖으로 보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하여 영창대군을 보호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면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죽일 생각이 없었으며 신하들의 잦은 간청과 여론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창대군을 궁 밖으로 보내고, 유배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광해군이 처음부터 영창대군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영창대군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조정이 대군을 수이 내라 날마다 보채되 어린아이 알랴 하여 듣지 아니하거니와, 도적 사괴여 역모하기와 방정하여 대란(大亂)이 났으니, 이제 뒤 탓이라 하나니?"

하더라.

이리한 후 오라지 아녀서 내관을 전언(傳言)하되,

"대군을 하 내여달라 보채니 아니 들으랴 견집하니 조정의 노(怒)를 저기 풀랴 잔 졸와 보려 하니, 잠깐 문밖에 내어든 노를 풀게 하여지이다." …(중략)…

"선왕이 어엿비 여기라 하오신 유교(遺敎)도 겨오시니 대군으란 의심도 마라소서. 머리털은 두지 못할 것이라 도로 드리나이다."

하여늘, …(중략)…

"아모라타 아해 안다 하오며 문밖에 피접 나는 일도 예부터 있으니, 이도 그만 여기 오셔 내어 보내오소서. 조정이 하 보채니 마음을 적이 눅이옵게 하는 일이옵지 해로운 일이 있사올까 근심 마라소서."

하였거늘, 대답하오시되, …(중략)…

"문밖에 내옵소서 하다 생심이나 멀리 보내여 두리이까? 이 서문 밖에 궐내 가깝온데 벌써 집을 잡았으니, 오히려 궐내에 두고서는 조정이 마양 보채어 업시하여지라 날마다 서너 달을 아니 보챌 날이 없으니, 내 비록 아니 듣고자 하나 조정이 요란하니 문밖에 내어 그 마음을 쉬원케 함이 좋은 일이오니 어련히 대군을 끌이리이까? 거짓말이 아니 되리이다. 백 번 믿어 내어 보내소서. 좋도록 하리이다."[52]

52) 교주본, pp.81~83.

위의 지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에서는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헤하기 위해 흉계를 꾸민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영창대군을 헤하기 위하여 온갖 말로 회유하고 위협적인 말로 협박하여 영창대군을 헤치려 하면서 겉으로는 조정 대신들의 뜻임을 내세워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는 영창대군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죽음에 비극성을 더하여 광해군의 행위가 옳지 못함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작자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인목대비의 폐위

인목대비의 폐위 사건은 <계축일기>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사건의 진행 상황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은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목대비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 준 사건이기 때문에 작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빠지게 되었다.

⑥ 서궁 생활

인목대비의 서궁 생활은 대부분이 과장되고 허구로 되어 있다. 서궁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터무니없이 과장하여 서술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작품에는 인목대비의 서궁 생활이 외부와 거의 왕래가 없고, 물품도 부족하여 신을 것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는 등 힘든 나날들을 보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특히 십년이 되어가니 온갖 것이 다하여 갖은 고초를 겪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궁 안에 원래 있었던 의복과 기물이 아무리 오래 사용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았고 외부에서 전례에 따라 어물·육류·소금·쌀 등의 물품을 끊임없이 공급하였다. 대비는 화란을 겪은 이후 소복을 입고 소식(素食)을 하자 시녀들도 모두 소식을 하였으므로 어육을 담 밖으로 도로 버렸는데 까마귀·솔개가 늘 모여들어 쪼아 먹었고 썩는 냄새가 궁 안에까지 풍겼다. 궁인들이 궁 안의 공지에 채소를 심어 아침 저녁의 찬거리를 마련하였고, 또 햇솜이 없었는데 궁인 한 사람이 요 속에서 몇 알의 목화씨를 찾아내어 해마다 심어서 솜 저고리를

지어 올렸다.[53]

위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인목대비의 삶이 전처럼 화려하거나 자유스럽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물품이 공급되었고, 생활이 곤궁하거나 비참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인목대비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생활을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해 어려움이 극에 달한 것처럼 허구를 가미하여 서술하였다.

내인이 신을 것이 없어 헌 옷을 뜯어 노를 꼬아 집신 처로도 하며 헌 신을 뜯어 신는 것을 기워 신으되 헤프니 견데지 못하여 살 밑을 빠혀 송곳 맨다라 초혜 짓기를 시작하다.
…(중략)… 십 년이 되어가니 각색 것이 다 진(盡)하여 신창 기울 노히 없어 베 옷을 풀어 꼬아 깁고, 지을 실이 없어 모시옷과 무명옷을 풀어 쓰더라. 내인이 발이 짓물러 울고 다니더니 한 내인 아해 발이 쩍여더 급한 소리로 우니, 우히 듣자오시고 잔잉이 여기오사,
"아모조로나 발 간사하여 주라."
하오시니, …(중략)… 쌀 일 박이 없어 소고리로 쌀을 일더니 가마개 박씨를 물어왔거늘,
…(중략)… 소옴이 없어 겨울을 칠 팔년을 지내되 햇 소옴이 없어 너터더니 면화씨가 섞여 들었거늘 그를 심어 씨 내어 세 해 째는 많이 되어 글로 옷에 두다. 사절이 다 지나되 햇나물 얻어먹을 길이 없더니 가지·외·동화 씨가 짐승의 똥에 들었거늘 심으니 나물 상을 얻어보다.
…(중략)… 밤 남근 우히 시녀하여 심겨 계오시더니 여러 해 무성하다가 기미년에 죽거늘[54]

위의 작품의 지문을 보면 인목대비와 나인들의 생활이 아주 곤궁하고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물품조차 공급받지 못하여 아주 힘든 삶을 산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작자가 서궁에 유폐되어 겪었던 고통을 더욱 처절하게 묘사하고자 한 결과에서 나온 허구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계축일기>는 광해군대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다룬 것이 아니라 작자가 의도한 바에 의해 재탄생한 것이다. 작자가 인목대비와 주변 나인들의 힘들고 괴로웠던 생활들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 것으로 허구성이

53)『광해군일기』33집, 광해군 15년 계해 3월 14일, p.498.
54) 교주본, pp.166~169.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허구성은 <계축일기>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닌 소설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 등장인물의 가상적 행위

<계축일기>는 조선시대 광해군 대를 배경으로 하여 실존했던 인물들을 등장인물로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이 작품은 장르가 소설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작자의 의도에 의하여 새로운 성격을 가진 인물로 재탄생하게 된다. 한 인간의 성격을 뭐라고 딱 잘라 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그때그때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마주치는 국면에 따라 그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55] 그러므로 작품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인물의 성격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 된다. <계축일기>는 실존인물들이 한 행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작자에 의해 그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한 것처럼 기술되었다. 즉, 작자가 등장인물의 행위를 가상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지금부터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 등을 통하여 성격을 분석하고, 역사 기록을 통해 실제 모습과 비교하면서 등장인물의 가상적 행위를 파악하여 작자의 의도를 분석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① 광해군

광해군은 선조 8년 후궁인 공빈 김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다.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을 당해 세자 책봉의 필요성이 생기자, 열일곱의 나이에 임시로 세자에 책봉되고, 선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된다. 광해군은 장자가 아니었고, 적자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자에 책봉되고 왕이 되었다. 즉위하자마자 친형인 임해군을 역모 혐의를 씌워 죽였으며, 계축옥사를 일으켜 영창대군을 유배시켜 죽였고 김제남 일가와 대비전 나인들 등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역모와 관련되었다는

55) 김정석, 「계축일기 인물성격 고 - 내인들의 성격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 1999, p.245.

혐의를 씌워 죽였으며, 마침내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등 인간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만행과 불효를 저지른다. 조선은 유교가 중시되던 시대였고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효였다. 그래서 광해군은 민심을 잃었고 조정에서도 그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 광해군이 패륜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포악한 성정만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광해군을 실제 모습과 다르게 묘사한다.

<계축일기>에서는 광해군을 유순하지 않고 속이 좁고 패륜적인 행동 일삼는 포악하고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광해군은 4가지 대표적인 패륜을 저지르는데 선조 후궁의 조카를 강제로 빼앗아 첩으로 삼고, 친형인 임해군을 역모의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8살 밖에 되지 않은 아직 어린 동생을 역모에 연루시켜 죽이고,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폐서인으로 만들고 서궁에 유폐한 후 기본적인 물품조차도 지급하지 않고, 갖은 계략과 흉계로 괴롭힌 것이다.

> 대개 아시적부터 불민히 여기오시나 임진왜란에 불의(不意)에 정하오신지라 상시 훈회에 전교 나오신 일이나 일절(一切) 승순치 아니하고, 니라오시는 족족 원수로이 너겨만 하니 니라오시되,
>
> "자식이 어버이 향하여 하는 도리 저렇듯 할 것이리오."
>
> 하오시고 외오 여기오시더니, 후궁의 족하를 의인왕후 빙전 적에 다려다가 첩 삼아 가려 하거늘,
>
> "못 하리라. 어찌 부덕(不德)의 일을 하려 하느뇨?."
>
> 하오셔, 허(許)치 아니하오시는 일을 깊이 한(恨)하다가 병오년(丙午年)에 대화(大禍)를 내어 한 힘을 얻고자 대욕하여 기이옵고 다려가랴 후궁을 저히되,
>
> "이리 하는 일을 여짭거나 아니 주거나 하면 타일(他日)에 족멸하리라."
>
> 저히고 협칙하야 내인을 보내어 아사가니,[56]

이 부분을 보면 광해군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임금의 후궁을 협박하는 일도 개의치 않는 효의 근본도 모르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조카면 광해군과는 친족이 되는데 그런 인물을 첩으

56) 교주본, p.30.

로 삼았다함은 당시가 유교를 중시하는 사회였음을 감안한다면 패륜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작품에서는 광해군이 애초에 효심이 없고, 패륜을 행하고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 인간임을 부각시켜 앞으로 선조의 정궁인 인목대비에게도 효를 행하지 않고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며 심지어 인목대비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성정을 가진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즉, 광해군을 악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하여 서술하겠다는 작자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빙천하오신 이칠일 만에 형을 외척으로 두 대간하여 논계하게 하여 놓고, 임해(臨海)를 보고 계사를 뵈여 왈,

"이제 나가면 죄를 벗고 궐중(闕中)에 있으면 죄 더을 것이니 내 몰라 이를가, 수이 나가소."

하고 군병(軍兵)을 포열은복 하였닷더라.

임해 꾀에 감겨 즉시 나가니, 일시(一時)에 내달아 두로 싸매어 비변사에 구류(拘留)하여 두었다가 교동으로 보내어 우리안치 하였더니, 어사당인이 오니 임해더러 닐오되,

"전신불수 한 체하여야 처자와 한데 두고, 니란 대로 아닌 즉 죽이리라."

하고, 공빈 사촌 오라비 김예직을 보내어 은근히 달래니 곧이 듣고 니란 대로 한대, 당장이 돌아간 후 즉시 심복(心腹)의 의원을 보내어 치독하여 죽이니라.[57]

<계축일기>에서 광해군은 선조가 갑자기 승하하고 보위에 오르자 선조 사후 일주일 만에 임해군이 역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신하들이 상소문을 올리게 하고 그 죄를 물어 교동으로 위리안치 시킨 후 명나라에서 조사를 나오자 전신불수 한 체하면 살려주겠다고 한 후 그 말을 믿은 임해군이 미친 척을 하여 위기를 넘기자 비참하게 죽여 버린다. 그러나 광해군일기를 보면,

수장(守將) 이정표(李廷彪)가 핍박하여 독을 마시게 했으나 따르지 않자 드디어 목을 졸라 죽였다.[58]

광해군이 임해군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부분은 없다. 또한 연려실기

57) 교주본, pp.32~33.
58) 『광해군일기』 31집, 광해군 1년 기유 4월 29일, p.426.

술의 기록을 보면 임해군을 죽이라는 상소에 광해군이 어쩔 수 없이 임해군을 처벌했고, 임해군의 죽음에도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종실(宗室) 순녕군(順寧君) 경륜(景倫) 등 35명이 소를 올려서 임해를 법대로 처단하여 대의(大義)를 밝히라고 청하니 답하기를, "우리 종척(宗戚) 모든 사람은 다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형제 중에서 동복(同腹)이 몇 사람인가. 우애하는 정이 실로 보통 형제간보다 갑절이다. 내가 부덕하여서 이런 큰 변이 있으니 밤낮으로 부끄럽고 두려워서 사람 대할 낯이 없다. …(중략)… 다음 해에 이진이 교동도에서 죽었다. 사람들이 모두 현감 이직(李稷)이 죽인 것이 아닌가 의심은 하면서도 감히 말은 하지 못하였다. 《하담록》 ○ 혹자는 별장 (別將) 이응표(李應彪)가 죽였다고 한다. 59)

그런데 작품에서는 마치 광해군이 임해군을 죽게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작품에서는 광해군이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진실성이 결여된 인물이며 혈육의 정도 느끼지 못하는 비정하고 무정한 인물로 나타내고자 하는 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광해군은 영창대군도 역모의 죄로 죽이는데 작품에서는 광해군이 처음부터 영창대군을 죽이고 싶어 했고 계획적으로 영창대군을 모해했고, 결국 죽이도록 한 것처럼 기술되었다. 작자는 광해군이 직접 영창대군을 죽였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까지 광해군이 주도했던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계축옥사가 일어났을 때 조정에서는 영창대군을 하루 속히 처단할 것을 주장했는데,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강경하게 반대했고, 다만 '죄는 없지만 조정의 의논이 또한 엄하니 다만 그 봉작을 빼앗는다'고 했으며, 이어 서인으로 폐했다가 성 밖의 민가에 내보내도록 했고, 결국은 강화도로 유배 보낸다.60)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영창대군은 신하들의 권력다툼에서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작자는 서궁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편전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작품에서 인목대비에게 고통과 괴로움

---

59) 이익성·이재호·김익현·임영창 역작, 『국역 연려실기술Ⅴ』 제19권 폐주 광해군 고사본말, 민족문화추진회, 1982.

60) 『광해군일기』, 5년 계축 5.21.~7.26, 민족문화추진회, 1992.

을 안겨 준 장본인이면서 <계축일기>의 주요 등장인물인 광해군을 악을 대표적인 인물로 설정하여 기술하였다.

광해군은 역사적으로나 작품에서나 크게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킨 일이다. 사실 인목대비의 측근들은 갖은 계략과 모함으로 인하여 대부분 죽임을 당하였고, 원자인 영창대군까지 죽어서 일을 꾸미려고 해도 꾸밀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킨다. 이 부분은 광해군일기와 작품 속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광해군은 자식의 도리를 저버렸고 불효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

광해군이 불효했다는 것은 <계축일기>의 곳곳에 나타나 있다. 광해군은 유순하지 않고 속이 좁은 인물이어서 선조가 자주 훈계하였으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원수로 여기기까지 하는 속 좁고 효심이 없는 인물이다. 선조대왕이 승하하자 아버지의 상중에 슬퍼하기는커녕 소리 내서 웃기까지 하며 대비가 곡읍을 하자 쓸데없이 운다고 듣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고, 대비가 곡을 하자 곡을 그치도록 했다. 선조의 묘호를 세우는 문제가 거론되자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 선조가 세운 공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종자를 붙이면 충분하다고 하여 아버지의 공을 깎으려 하였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으며 패륜아적인 성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광해군은 작품에서 묘사한 것처럼 효심이 없는 무도한 인물은 아니었다. 일례로 선조 40년 정미 10월부터 12월의 기록을 보면 광해군이 선조에게 매일 문안했고 하루에도 수차례 문안한 날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조 병환 시 거의 한 달을 대내에서 시질하였다.[61] 이 기록을 보면 광해군은 매일매일 선조의 건강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효심이 깊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작품에서는 인목대비와 대비되는 인물인 광해군의 단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부러 불효막심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또한 광해군은 나이로 따지면 아들뻘인 영창대군을 대놓고 싫어하고 미워한다. 즉, 영창대군을 동생이 아닌 자신의 보위를 위협하는 정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면 광해군이 노골적으로 영창대군을 미워했음을 알 수 있는데 어른이

61) 『선조실록』, 선조 40년 정미 10월~12월, 민족문화추진회, 1988.(선조 40년 정미 10월~12월의 기록을 종합·정리함.)

면서도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인물로 미성숙한 성격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내전에서 행여 진지하여도 공주란 받잡고 대군으란 아니 받잡더라.
대전이 니라되,
"웃전에 문안 가면 대군의 소래 듣기 슬터라."
하며, 하루는 대군이 하,
"대군 형님 보아지라."
하셔늘, 공주·대군 두 아기시를 문안 오신 때에 앉혀 뵈오니,
"공주란 나아오라."
하여 만져 보고,
"하 영민하니 어엿브이다."
하고, 대군으란 본 체도 아니 하고 말도 아니하니 어려워 하시거늘, 우히 하오시되,
"너도 나아 니거라."
하오시니, 일어나 대전 앞에 서시되 본체도 아니하니 대군이 나가 울으시며,[62]

<계축일기>에서 광해군은 어리석고 무능한 인물로 묘사된다. 공사를 처리 할 능력이 없어 매사를 장인과 왕비에게 물어서 처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광해군은 총명하여 세자에 책봉될 때도 많은 대신들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광해군이 세자에 책봉되는 것은 나라와 백성들의 복[63]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다. 여러 대신들이 칭찬할 정도로 총명한 인물이었던 광해군이 공사도 구분 못하고 스스로 일 처리도 못하는 무능한 인물인 것처럼 한 것은 작자가 광해군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한 결과이다.

작자가 의도적으로 광해군을 부정적인 인물로 그리려했기에 작자에 의해 성격이 새롭게 창조된 모습으로 실제와는 다른 인물로 형상화된 것이다. 작자는 본래 광해군을 배척하는 입장에서 글을 쓰려고 했고, 광해군의 폐위가 온당하다는 입장에서 인목대비는 피해자이고 광해군은 가해자라는 위치에서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광해

62) 교주본, pp.38~39.
63) 『선조실록』 21집, 선조 25년 임진 4월 28일, 민족문화추진회, 1987, p.483.

군은 작품에서 불효막심한 인물이자 폐륜을 일삼는 인물이며 유순하지 않고 속이 좁고 미성숙하며 어리석은 인물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② 인목대비

인목대비는 연흥부원군 김제남의 3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난다. 선조 35년에 열아홉의 나이로 선조의 계비로 간택되었고,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을 출산하면서 선조의 총애를 받는다. 그러나 선조가 죽자 계축옥사로 인해 부친과 두 동생이 처형당하고 노모가 유배되어 생사도 몰랐으며, 영창대군이 적소에서 비명횡사하는 등 지극한 슬픔을 겪기도 한다. 또한 자신도 폐위된 채 서궁에 유폐되어 갖은 모멸과 고난을 당하다가 인조반정 후 복위된다.[64]

<계축일기>에서 인목대비는 광해군과 대비되는 인물로 한없이 착하고 운명에 순응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광해군이 선조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에는 중간에서 관계가 좋아지도록 주선하기도 하고, 선조 사후에 상중이던 광해군이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잘 먹지 못하자 건강을 염려해 육선을 권하기도 한다. 어찌 보면 자신에게는 적이나 다름없는 광해군에게도 어진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착한 품성을 지닌 인물인 것이다.

> 정미년 십월 불평시에도 동궁(東宮)이며 빙을 즉시 불러 시측에서 시약(侍藥)하옵게 하며, 불민하여 성의(聖意)에 어기온 일이 있어도 내전으로 겨오샤 사이에서 좋도록 꾸려가니 그때에는,
> "내전 상덕(上德)이 지중(至重)하여라."[65]

> 빙천하오신 석 달 만에 대전이 수라를 못 자시니거늘 우히 육선을 권하오시니 권육(勸肉) 한 두 번 만에 자시다. 양죽을 하여 갔더니 물려 근신 당보하되,
> "이 죽이 가장 좋으니 채와 두었다가 훗 때에 달라."하니[66]

64) 민영대, 『조선시대 궁중소설 연구』, 역락, 2004, p.94.
65) 교주본, p.29.
66) 교주본, p.39

사실 인목대비가 위에서 묘사된 것처럼 한없이 어질고 궁중의 어른으로서의 모습만 보였던 것은 아니다. 작품에는 선조의 죽음에 슬퍼하며 미친 듯이 우는 소리에 전각이 무너질 듯 했다고 되어있다.

우히 빙측에 와 곡읍을 그치지 아니 하오시니,[67]

인목대비의 이런 지나치리만큼 심했던 곡성은 물론 억제할 수 없었던 대비의 슬픔을 잘 말해주고 있고, 대비의 착한 심성을 잘 나타내 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목대비의 이런 지나치리만큼 심했던 곡성은 궁중에서 곡읍을 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되어있던 당시로 보면 분명 지나친 것이었고 법도를 무시한 행위이다.[68] 그러므로 인목대비에게는 침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가는 자신과 같은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인목대비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묘사하며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핍박당하는 인물로만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계축일기>에서 인목대비는 광해군에게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가지만 눈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인내심이 많은 여인이다. 광해군에게 직접적인 대항을 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고 조심성이 많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아래의 예문은 광해군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한탄하는 부분으로 인목대비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내 무신년(戊申年)에 죽지 아니코 살았기는 대전 선왕 자이신가 하여 두 어린아이를 의탁하여 평안히 살리까 하더니, 여러 해를 두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백 가지로 근심하여 사더니, 흉적(凶賊)을 만나 천지간에 용납 못할 대역(大逆)의 말을 내게로 미뤄오니, 하늘이 무지(無知)하사 이리 애매할 줄을 말 아니하니 무슨 말을 하리오.[69]

---

67) 교주본, p.41.
68) 김용숙, 「계축일기 연구 - 광해군의 성격 분석을 主로-」, 『기념논문집 7』, 숙명여자대학교 학술지논문, 1968, pp.12~13.
69) 교주본, p.88.

"하늘아! 내 무슨 죄를 지었관대 하늘이 이리 섧게 하시는고."
하오사 하 설워 우옵시니,[70]

<계축일기>에서는 인목대비를 광해군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광해군은 어리석고 무능하고 포악하고 효심이 없는 악한 인물임에 반해 인목대비는 어질고 착하고 현숙하고 인내심이 많고 사려 깊고 신중한 착한 인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대비는 작자가 인목대비의 입장에서 작품을 서술해 나가려고 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목대비의 성격을 묘사한 방법 중에 <계축일기>에서 도드라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서간의 삽입이다. 이 작품에서는 서간이 상당부분 실려 있고,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절정부분이 특히 서간으로 되어 있다. 영창대군이 출궁하기 직전부터 그의 죽음을 알게 되는 부분까지로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이 부분은 서간을 통하여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나타내면서 긴장감을 유발하고 극적효과를 일으키려는 작자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영창대군의 출궁으로 인한 인목대비의 절박했던 심정과 이를 대하는 광해군의 무정한 태도가 대비를 이루어 인목대비의 억울함과 서러움 등의 한을 잘 표출해주고 있다.

대군으로 인하여 이런 화가 내 부모님과 동생에게 미치다니, 어찌 차마 듣고 앉아만 있을 수 있겠소? 여기 내 머리털을 베어서 증표로 줄 터이니, 내 아들을 데려다 마음대로 하시오. 그리고 대신 내 아버님과 동생을 놓아 주소서, 자식으로 인하여 어버이께서 화를 당하시다니, 차마 살아서는 못 보겠소이다![71]

내 머리털을 친히 잘라 직접 글을 써 보냈건만 받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어찌 이런 말을 하시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죄가 가당키나 하리까?[72]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상도 돌아가신 마마의 아드님이시고 영창대군 또한 그 아드님 되시니, 형제간의 정으로 어찌 차마 해함이 있겠소? 다만 영창대군은 아직 열 살도 못 되었어요. 대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한 번도 밖을 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

70) 교주본, p.89.
71) 조재현, 『인목대비 서궁에 갇히다 - 계축일기』, 서해문집, 2003, p.67.
72) 조재현, 앞의 책, p.74.

니 이 어린것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조정의 신하들이야 대전께서 압력을 가하실 탓이니, 제발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셔서 인정을 베풀어 주시오![73]

위의 지문에 나타난 것처럼 인목대비는 서간을 통해 처음에는 부모, 형제를 살리기 위해 영창대군을 줄 터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내어놓으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아들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광해군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들에 대한 해명을 한 편지를 인목대비에게 보내는데 그러한 소문의 근원지가 인목대비임을 밝히며 인목대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음은 은연중에 밝힌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정의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영창대군을 내 놓으라는 편지를 보내고, 인목대비는 절대 보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면서도 광해군의 감정에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다. 인목대비와 광해군은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 은근한 말로 설득하려 한다. 영창대군의 출궁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저 방안에서 가슴만 치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광해군을 설득하려 노력하였고 이 부분을 통해 인목대비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설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으며, 가족애가 깊고 처절한 모정을 가진 여인임을 알 수 있다.

<계축일기>에서는 인목대비를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한없이 착하고 유순하며, 인내심이 많고 사려 깊고 현숙한 인물로 가족애가 깊고 처절한 모정을 가진 인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③ 영창대군

<계축일기>에서 영창대군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은 미비하지만,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인물로서 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영창대군의 실제 삶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작품에서 엿볼 수 있는 영창대군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창대군은 선조의 적자로 선조의 열네 명의 아들 중 유일한 정비소생으로 왕의

73) 조재현, 앞의 책, pp.75~56.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권정례(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거행하는 의식)로 공빈 김씨의 소생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였으나 그 뒤 정비의 소생인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세자를 바꿀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갑작스런 사망으로 실현되지 못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과 광해군을 지지하던 이이첨 등 대북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 서자 출신인 박응서가 거짓 고변하면서 역모에 연루되어 서인으로 강등되어 강화도에 위리 안치된 후 증살되었다.

영창대군과 광해군은 항렬로 보면 형제였지만 나이로 보자면 약 30살정도 차이가 났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읜 영창대군에게 광해군은 아버지와 비슷한 존재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래서 광해군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고, 광해군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가슴아파한다. 다음의 지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 하루는 대군이 하,
> "대전 형님 보아지라."
> 하셔는, 공주・대군 두 아기시를 문안 오신 때에 앉혀 뵈오니,
> "공주란 나아오라."
> 하여 만져 보고,
> "하 영민하니 어엿브이다."
> 하고, 대군으란 본 체도 아니 하고 말도 아니하니 어려워 하시거늘, 우히 하오시되,
> "너도 나아 니거라."
> 하오시니, 일어나 대전 앞에 서시되 본체도 아니하니 대군이 나가 울으시며,
> "대전 형님이 누으님으란 어엿비하고 날난 본 체도 아니시니, 나도 누으님이나 될 것을 무사 일 사나이 되닷던고."
> 하시고 종일토록 울으시니, 보매 불쌍터라.[74]

위의 글을 보면 영창대군은 광해군을 좋아했지만 광해군이 노골적으로 영창대군을 싫어하고 경계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영창대군은 광해군의 절대 권력을 위해 희생된 인물로 묘사하여 극적인 효과를 주려고 한 작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74) 교주본, p.38.

광해군의 핍박으로 인해 영창대군이 궁을 나가던 날의 영창대군의 모습을 보면 어리지만 왕재를 갖춘 총명하고 영특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나흘만 피접 났다가 올 것이니 보선 신고 웃옷 입고 날 좇아 나가옵사이다."
하니 니라시되,
"죄인이라 하고 죄인 나드는 문으로 내어가라 하니, 죄인이 보선 신고 웃옷 입어 쓸데 없다."
하셔늘,
"뉘셔 그리 니라옵더니이까?"
대답하시되,
"남이 일러 알까, 내 다 알았네. 서소문(西小門)은 죄인 나드는 문이니 나도 죄인이라 하고 그 문밖에다 가두려 한다."
하고,
"나와 누우님 조차 가면 가려니와 내 혼자는 못 갈노라."
하시니, 우흔 더욱 천지 망극히 우오시더라.[75]

위 부분을 보면 영창대군이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자신에게 닥친 재앙을 미리 예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 작자는 영창대군에게 다가온 비극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영창대군의 어리지만 영특한 인물됨을 드러내며 독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고조시키고자 한다.

날은 늦어가고 하 민망하여 힐우다가 못하여 우흔 정 상궁이 업삽고, 공주 아기시는 주 상궁이 업삽고 대군 아기시는 김 상궁이 업사왔으니 대군이 하시되,
"웃전과 누으님과 먼저 서시고 나는 뒤에 서지라."
하셔늘,
"어찌 그리 서라 하시는고?"
하니,
"내 먼저 서면 날만 내고 다 아니 나오실 것이니 나 보는 데서 가압사이다."
하시더라,

75) 교주본, pp.90~91.

…(중략)…

대군 아기시만 문밖에 업혀 나셔셔 업은 사람의 등에 머리를 부딪쳐 울으시며,

"마마 보세."

하다가 못하여,

"누오님이나 보세."

하시고, 하 애를 타 설워하오시니, 곡성이 내외에 천지진동(天地振動)하여 눈물이 땅에 가득하니 사람들이 눈이 어두어 길을 모를러라.

아기시를 문밖에 내어 호위하여 환도(環刀)·화살 찬 군장(軍將)이 위립하여 가니, 그제야 울기를 그치고 머리를 숙여 자는 듯이 업혀 가시더라.[76]

윗부분을 보면 영창대군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하면서 광해군의 비정성과 대비시키고 있다. 영창대군은 궁을 나가기 전까지는 슬퍼하고 서러워하였지만, 궁 밖에서 칼을 찬 군사들을 보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우는 것을 그치는 등 빠른 상황판단력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영창대군은 가장 고귀한 혈통을 타고난 인물로 임금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희생당하는 인물로 그 인물됨이 뛰어났기에 그의 죽음은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온다. 영창대군은 광해군의 악한 면모를 더욱 두드러지게 해주면서 인목대비의 깊은 한까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인물이다.

④ 나인들

<계축일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나인들이다. 나인들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역사 기록과 비교하여 그들의 가상적 행위를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작자가 작품을 썼을 때 역시 나인들에 관한 기록이 부족하여 상당부분 상상에 의해 가상적으로 형상화 하여 기술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작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나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광해군측에서

76) 교주본, pp.91~93.

인목대비에게 온갖 악행을 하는 악인을 상징하는 나인들이 한 부류이고, 인목대비의 곁에서 뚜렷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난과 수난의 삶을 살아가는 한 많은 여인들인 나인이 또 한 부류이다.

광해군측 나인으로 인목대비를 모함하고 괴롭힌 대표적인 나인이 가히와 중환이, 은덕이와 갑이, 난이, 천복이다. 그들은 광해군이 왕으로서의 체통이 있고 인목대비와 모자지간이라는 점 때문에 인목대비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행함으로써 광해군에게 충성한다.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는데 크게 일조하고, 인목대비가 광해군을 해하려 하는 것처럼 일을 꾸며 인목대비를 모함한다. 그녀들은 자신이 모시는 상전에 대한 충섬심으로 일을 꾸몄겠지만 작자는 그녀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인목대비와 그 주변인물들을 괴롭히는 악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린다.

가히는 광해군의 가장 최측근으로 <계축일기>에서 가장 악역을 맡고 있고, 역사상으로도 조선 3대 악녀[77]라 불릴 정도 그 악행이 이루 말할 수 없다.

> 늙은 상궁을 가히(介屎)서 만나보고 닐오되,
> "대군보모가 좋이 있는가. 귀밑에 패 달 날 있으리. 김 상궁 좋이 있는가. 약사발 붙들 날 있으리."
> 한대,[78]

> "할니나 고이 살가 보자. 대군 기물이나 수진궁이 아니오랴. 우리게 오리라."[79]

위의 예문은 가히가 인목대비 측의 나인들에게 악담을 하고, 대군과 대비에게 해를 입힌 후 그 물건을 다 가져가겠다 말을 하는 부분으로 악한 마음과 흉계가 엿보인다.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을 모시는 나인들에 대해 못마땅한 마음을 품고 언젠

77) 조선시대 3대 악녀라고 하면 문정왕후의 최측근이었던 정난정, 광해군 때의 김개시(가히), 숙종 때의 장옥정(장희빈)이 있다. 이들은 정국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여인들로 각종 암투와 부정, 비리를 서슴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 때 권력의 최정점에 섰다가 한 순간에 몰락한 비운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78) 교주본, p.51.
79) 교주본, p.52.

가 죽게 될 것이라는 악담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 대비나 대군에게까지 험담을 퍼붓는 인물인 것이다 .

중환이 제 오라비 인 위조에 들어 여러 해 형추하매, 대전을 원(怨)함이 날로 심하여 원악을 이기지 못하야 공연히 원망의 말 곧 하면, …중략… 원망하는 일을 가히라서 알고 들여가 울히며 달래여 가장 은근히 말하고 정을 내게 한 후에,

"너도 내 니라는 말을 들으면 나도 네 오라비를 살와 주마."[80]

우으며 각색으로 달래며 위엄을 지어 닐오되,

"양전이 상궁을 보아 친히 니라고저 하오시더니 연고 있어 못감하오시니 날더러 니라라 하오셔늘 니라옵네. 이제 드러가서 부대 죽이옵고 살와 두면 종에 해만 설울 따름이오. 유익함이 없으리라. 이 말 곧 내면 보자. 죽은 어버의게 니라히 화를 벗지 못하리라."

하더라.[81]

또한 인목대비전의 나인들을 회유하여 대비를 참소하라고 은근히 달래며 변상궁이 아파서 출궁했다가 다시 들어갈 때에도 대비를 헤할 것을 요구한다. 가히는 위협과 회유를 적절히 사용하여 인목대비를 괴롭히는 영리하면서도 흉악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환이는 대비전의 물건을 훔쳐 내어가고도 당연한 듯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하여 대비를 모함하는 천성이 악한 인물이다.

진상 수라 은바리를 도적하야 가히를 주었더라.[82]

"대군이 들었던 집에 가 긔도지사를 다 하더라."

하니,

"옳으냐, 네 아난다?"

"아나이다."

---

80) 교주본, p.103.
81) 교주본, p.160.
82) 교주본, p.103.

"눌을 위하야 비더니?"

"대전을 죽으라 비더이다."

"어찌하야 비더니?"

"향로 향합하고 과잘·떡·실과하고 꽃 짖고 목욕 정성하고 비더이다."

"네 본다?"

"내 보이다."

하더라. 각색 일을 제 본 다시 다 하더라.[83]

가히가 다른 나인들을 이용해 대비를 괴롭혔다는 중환이는 가히의 계략에 이용당하는 인물로 어리석고 아둔하다.

은덕이와 갑이는 대비의 세간들을 자신들이 갖지 못하여 원통해하고, 영창대군이 궐을 나가고 나서 슬퍼하는 나인들을 보며 대비가 죽거나 살거나 무슨 상관이냐며 우는 눈에 재나 넣자고 하며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까지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비뚤어진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다.

내인 아희들이 우는 이 있으면 은덕이·갑이 꾸짖으며,

"요년들, 대군 죽으나 사나 네 무슨 아랑굿가. 네 어미 네 아비네 죽거든 울고 대군 생각그란 우지 마라. 우는 눈에 재 넣자."

하고 꾸짖고 치니 사람이 나다니지 못하더라.[84]

난이는 가장 교만하고 간사하여 일찍이 대비마마께서 권세를 누리실 때는 두 아기씨에게 유별나게 정성을 다하는 척하였다. 그러다 계축년에 마마께서 화를 당하자 함부로 원망하고 다니며 이중적인 성격을 보인 인물이다.

이 사람이 가장 간사하고 교만할여 나라히 평안하오실 적은 양 아기 향하여 남의 유에별 정성을 다 하더니, 계축년을 만나 나라 향하와 불측한 원망을 하고,[85]

못쓸 흉을 아뢰되 아당하여 중환이와 한가지로 하야, 나라 기물을 주야 방자히 가져가

83) 교주본, pp.119~120.
84) 교주본, p.98.
85) 교주본, p.126.

며 대군 피접소의 것을 더욱 서러저다가 제 종과 중환이와 일심하여 잠은 문을 열고 세간을 서러저 밤에 가져다가 난의 아아 꽃향에게로 가져가니[86]

천복이는 변상궁 대신 대비전으로 온 인물로 나이는 육십이었으니 지식이 전혀 없고 미련스러운데다 더디며, 은덕이, 가히와 어울리며 대비를 괴롭혔다. 버릇이 없고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설치고 다니는 인물이다.

"날을 대전에서 부러 보내어 변(卞)이 병하여 나갔으니 네 들어가 시위하라 하셔늘 왔으니 수이 드러니거디라."
하여늘,

…(중략)…

"내 즐겨 왔을까? 슬흐니 마다하니 대전 내전이 네 들어가야 시위를 잘 하리라, 아니 들어가면 중죄를 주리라 하오셔늘 왔지 슬히 여길 줄 알면 올까."
말이 가장 해악하니 처음에 쓸믜더라. 즉시 들어가 침실 지게 열고 바로 들어가 앉으며 여짜오되,[87]

천복이 입을 것 없어라 앙설하거늘, 초록과 백주와 소음이며 신이며 주오시고 닐오시되,
"너를 심상한 내인으로 대답 아녀 계축년에 나간 내인 내라 보채어 두 감찰을 잡아내니 옥중에 가 굿겨시니 치워한다 할새 입을 것 주니, 먹을 것 자로 주라."
하오시니, 불 때일 남기며 음식을 주오신다 하고 보내면, 천복이 엄연히 누워서 대답하되,
"주오시니 상덕은 가이없거니와 나는 귀치 아녀 하노라. 이년 조차 나라 것 슬흐여하노라."
하니, 가져갔던 사람이 차마 듣지 못하여 수이 나오니라.[88]

광해군측의 나인들은 광해군의 입장에서 보면 충성심이 강한 충신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이들을 인목대비측의 입장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목대비에게 갖은

86) 교주본, p.128.
87) 교주본, p.143.
88) 교주본, pp.149~150.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인목대비측 나인들은 작품에서 인목대비를 모시고 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인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되었을 때에는 생필품도 지급되지 않아 어렵게 생활을 하고, 보통 남자들이 하는 지붕을 수리하는 일 등도 직접 하는 등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다. 이들은 끊임없이 가히와 중환이의 회유 유혹을 받지만 끝까지 인목대비를 지키고 인목대비가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변상궁과 김상궁이 있다.

변상궁은 대비전의 대표적인 나인으로 대비의 곁을 굳건히 지킨 인물이다. 대비가 대군을 강제로 빼앗기고 애통해하며 기절하였다가 정신을 차린 후 자결하려고 하자 끝까지 대비를 설득한 인물이다.

> 변 상궁이 아옵고 주야를 떠나지 아녀 서로 체번하야 앉아서 각색으로 위로하야 여짜오되,
>
> "본곁이오시나 우히오시나 본데 적선의 뜻을 먹사오셔 사람을 하나도 해 하오심이 없아오시니, 하늘이 무삼 허물을 보오신지 이런 설운 일을 보게 하시니, 이 설움을 반다시 벗자오실 것이오. 대군이 당시 열 살도 못하오시니 현마 이제 죽이오리이까? …(중략)… 공주 아기시도 일변 자손이오시니 비록 따님이오시나 버리고 죽사오시면 어데 가 눌을 의지하야 살으시며, …(중략)… 인간의 견대기 어렵사온 추추 섧사온 일이 다시 없아오나 훗 이름이나 아니 생각하오시리이까. 이 어리고 미혹한 즘생 같자온 소견에도 이러하오니 애통을 참사오셔 적이 눅여 생각하오소서."
>
> 하니,[89]

위의 지문을 보면 변상궁은 인목대비에게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대비를 위로했는데 충성스럽고 언변이 뛰어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 병이 들어 다 죽어서 나갔다 다시 궁궐로 되돌아 올 때 가히가 인목대비를 해하기 위해 광해군측에 설 것을 종용하자 단호하게 거절하고 인목대비 곁으로 돌아간다. 인목대비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심이 강한 인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김상궁은 영창대군의 보모상궁이었는데 성격이 맑고 고고하였기에 무고를 당하

89) 교주본, pp.93~94.

여 죽임을 당한다. 김상궁은 충성스런 인물이기는 하지만 작품에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거의 없다.

중간에 무복을 하여 완벽한 선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인목대비를 위해 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처음에는 거짓자백을 하지 않았고, 결국 무복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했다는 점에서 여옥 또한 선인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여옥은 경술년에 들어온 시녀로 용모는 별로 예쁘지 않지만 순하고 정직하여 침실에서 일하는 소임을 맡았는데 눈에 띄게 성실한데다 영특한 사람인지라 대비와 영창대군의 고난을 서러워하고 가슴아파한 착한 인물이다.

문상궁은 원래 남을 잘 믿는 성격이어서 중환이가 하는 말을 다 믿어버리는 인물이다. 중환이에게 속아 인목대비를 해하는 것이 되었지만 문상궁 또한 선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Ⅴ. 문학사적 가치

<계축일기>는 <인현왕후전>·<한중록>과 함께 궁중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시대적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역사 속에서 실재하는 사건들을 다루었고, 궁중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그 배경으로 하였기에 동시대의 다른 작품들과 쉽게 구별된다. <계축일기>는 광해군 대라는 아주 혼란한 시대를 다룬 작품으로 특수 계층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왕과 대비, 그리고 나인들을 작품화하였으며 궁중 안에서의 처절한 삶의 현장을 소설화하였다는 데 가치가 있다. 즉, 역사적인 사건을 소재로 하였지만 작자에 의해 재탄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축일기>는 소설문학 발달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계축일기>는 주로 대화를 통하여 내용을 전개하여 생동감 있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서간문을 삽입하여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에 대하여 잘 묘사하였다. 다른 고전소설처럼 작자의 설명으로 사건 전개나 인물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인물의 성격을 묘사했다. 특히 작품의 핵심이 되는 사건인 계축옥사도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의 갈등이 가장 심화되는 부분을 서간을 삽입하여 내용을 전개시키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부각시킨다. 인목대비와 광해군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설득시키려는 과정을 통해 인목대비의 안타깝고 서러운 마음을 잘 표현하였고, 광해군의 무정함과 대비시켜 주제를 잘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서간을 통해 작자가 등장인물의 심정을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서간의 삽입은 등장인물의 내면세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후대의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계축일기>는 여성의 시각에서 서술되었다. 작자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작품의 서술자는 분명 여성이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중요시하던 시대로 여성의 지위가 낮았으며 그만큼 대우도 받지 못하였다. 여성은 항상 인고하고 순종하며 지

내야하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등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항상 참을 것을 강요당하였기 때문에 한을 가지고 있었다. <계축일기>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가지 원초적인 한과 궁중이라는 폐쇄된 사회에서 자신과 자식, 그리고 친정의 성쇠를 어깨에 짊어진 왕실 여성들의 한을 짐작 할 수 있게 해준다.[90] 인목대비는 여성이었기에 정치의 일선에 나설 수 없었고,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광해군과 맞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광해군측의 핍박에도 인내하고 참아야 했고, 부모님과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특별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순종해야만 했다. 즉, 당시 시대가 여성에게 인내를 요구하던 시기였고, 여성의 목소리가 궁중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문학작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작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축일기>는 궁중 여인들의 고통과 아픔이 작품으로 승화되었다는데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계축일기>는 궁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나인들의 이야기가 상당부분 나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자신들이 모시는 상전들과 운명과 희로애락을 함께한다. 하기 싫은 일이라도 상전이 시키면 해야 하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좋은 상황일 때는 그 공을 당연시 여기면서 부정적인 일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가장 먼저 화를 당하는 모습들이 작품 속에 상세하게 묘사되었다.[91] 대표적인 예로 계축옥사와 유릉방정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나인들은 그들이 모시던 상전이 인목대비라는 이유로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한다. <계축일기>는 실록이나 공적인 기록에서는 알 수 없는 나인들의 삶을 묘사하여 그 이면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폐쇄된 사회에서만 가능한 고어와 중후하고 전아한 궁중용어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특수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92] 궁중은 그 나라 문화의 중심이어서 한 나라의 표준적인 말이 통용되었지만, 상당수

90) 정은임 교주본, 『계축일기』, p.16. 이회문화사, 2005.
91) 정은임, 앞의 책, p.17.
92) 정은임, 앞의 책, p.17.

의 어휘와 표현법은 서민사회와 차단된 상태에서 특수하게 발달되기도 한다. 궁중은 폐쇄된 사회이므로 고유어 가운데에서 옛말이 그대로 보존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일반사회에서도 쓰이는 말이 특수한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한자어도 상당수 사용되었고 몽골어나 중국어 계통의 차용어도 상당수 쓰였다. 이처럼 일반적인 고전소설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궁중이라는 특수한 곳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특수어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계축일기>는 창작 시기가 조선시대 중·후기로 추정되어 고전소설사에서 보았을 때 비교적 초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순수 고유어를 사용하여 문학성을 높여주며 중세국어 연구에도 도움을 준다는데 문학사적 가치가 있다. <계축일기>가 인조반정 이후에 쓰인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뒤에 쓰인 <한중록>과 비교해 볼 때 같은 궁중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고 해도 <한중록>은 한문으로 쓰인 작품이고 <계축일기>는 순수 고유어로 쓰인 작품이다. <계축일기>가 쓰여진 시기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조반정 이후라고 추정한다면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고, <계축일기>의 연구를 통해 중세국어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Ⅵ. 결　　론

본고에서는 <계축일기>의 장르를 명확히 하고, 장르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작품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며 작자의 작품화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작품에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과 양상에 대하여 살펴본 뒤 작자가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작품이 소설로서 가지는 가치를 고찰해 보았다.

<계축일기>는 조선시대 광해군대에 일어난 계축옥사라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된 기록적 성격이 강한 수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작품 속에 소설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필자는 작품의 장르를 소설로 설정하였다. <계축일기>의 문체가 당시의 고전소설과 같은 문어체로 되어있고, 그 구성이 현대소설의 5단 구성과 유사하며 작자의 저작 의도와 태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표현되어 허구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 등장인물이 선과 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악의 구별이 분명하다는 점, 작품의 궁극적인 주제는 권선징악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작품의 장르를 소설로 설정하였다. 또한 제목은 '○○실기'라고 썼지만 그 장르는 소설인 작품인 <화용도실기> 등을 예로 들어 표제와 장르가 항상 일치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계축일기>도 표제에는 '○○일기'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장르를 소설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소설 중에서도 역사의 한 부분을 다루기는 했지만, 그 중심이 궁중으로 일반 백성들은 접근하기 힘든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궁중소설로 설정하였다.

작자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나인설, 인목대비설, 정명공주설 등이 있다. 나인이 단독으로 다루기에는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인의 입장에서 다루기 힘든 정치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점과 궁중의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신분이 낮은 나인들이 공식적으로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나인이 이 글을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인

목대비를 작자로 설정하기에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광해군과 왕비를 술회문에서 자주 사용한 역괴나 적조라고 하지 않고, 대전·내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과 대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이 사용하기 힘든 저속한 표현이 나타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인목대비를 작자로 설정하기에도 곤란하다고 보았다. 필자는 <계축일기>의 작자를 총명하고 뛰어난 문장력을 갖추었던 정명공주가 인목대비가 쓴 글과 당시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훗날 당시의 일을 회고하며 인목대비를 모셨던 나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썼다고 보고 나인은 서술자의 위치로 작품에 등장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효심이 강했던 정명공주가 인목대비를 위로하기 위해 쓴 것으로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나인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나인들이 쓴 것처럼 하였다고 설정하였다.

<계축일기>의 구조는 사건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기술하는 순차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고전소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서술하는 연대기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다가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삽입하거나 미래의 일을 사전 제시하면서 연대기적 질서를 깨뜨리고 서사의 효과를 부각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소설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며 작자의 창작의도를 드러내준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계축일기>는 대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된 작품이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면 광해군의 즉위, 임해군의 역모사건, 계축옥사, 서궁 유폐 등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계축일기>에 나타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에 나타난 주된 갈등의 원인과 갈등의 전개 양상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정통성을 갖지 못한 광해군과 다른 왕자들의 갈등, 절대 권력을 사이에 둔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대립이다.

광해군은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명의 인물과 대립한다. 바로 선조의 장자라는 명분을 가진 임해군과 왕과 왕비의 자식으로 적자라는 정통성을 가지며 선조의 지지를 받았던 영창대군이다. 정통성을 획득한 이들과 정통성이 결여된 광해군과의 갈

등은 상대방의 죽음을 통해서 해소된다. 광해군이 임해군와 영창대군을 역모의 죄로 죽이면서 일방적인 방법으로 갈등이 해소되어 버린다.

<계축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은 절대 권력을 사이에 둔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갈등은 선악의 대립구조로 나타나는데 광해군은 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목대비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로 절대권력을 위해 대립한다. 표면적으로는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갈등구조로 되어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을 지지하는 인물들 간의 갈등도 포함되어 있다. 인목대비와 소북파, 변상궁과 인목대비를 모시는 나인들은 선을 대표하는 인목대비와 운명을 같이하며 악을 대표하는 광해군과 대북파·김상궁·광해군을 모시는 나인들의 핍박에 일방적으로 당하며 선과 악이 대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계축일기>에서의 갈등은 넓게 보면 선과 악의 대립 구조로 되어 있지만, 작품의 내용을 보면 선을 대표하는 인목대비가 악을 대표하는 광해군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광해군측에 의해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식을 잃고 곁에 있던 나인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본인도 서궁에 유폐되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하늘의 도움을 받아 삶을 연명하고 결국 외부적인 요인인 인조반정에 의해 갈등이 해소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계축일기>는 정통성 문제에서 갈등이 파생했고, 권력자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며 외부에 의해 갈등이 해소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계축일기>는 장르가 소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였지만 작자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허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계축일기>의 중심이 되는 사건인 광해군의 즉위, 임해군의 역모사건, 계축옥사, 영창대군의 죽음, 인목대비의 폐위와 서궁 생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역사에서는 광해군의 즉위가 인목왕후와 대신들에 의해 별다른 대립 없이 이루어졌지만, 작품에서는 인목왕후가 광해군이 아닌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고 모함을 받고 있는 것처럼 기술한다. 이것은 작자에 의해 허구화 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임해군의 역모 사건도 실제 역사를 보면 신하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작품에서는 광해군이 직접 임해군을 죽이기 위해서 신하들

에게 거짓 상소를 올리게 한 뒤 역모의 죄를 씌워 죽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이는 광해군이 자신의 친형까지 죽인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는 무도한 것처럼 나타내기 위한 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구화 된 것이다. 계축옥사는 단순한 살인 강도 사건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실제와 작품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묘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는 아주 가혹한 고문이 이루어졌는데 작품에서는 그 정도가 덜한 것처럼 되어 있다. 이것은 작자가 서궁에 있었기 때문에 고문하는 소리와 자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썼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기술된 것이다. 영창대군의 죽음에 관한 것도 실제로는 광해군이 신하들의 간청과 여론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작품에서는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기술되었다. 이것은 광해군의 악한 성정을 부각시켜 광해군의 행위가 옳지 못함을 고발하고자 하는 작자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목대비의 폐위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일이지만 인목대비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것이기 때문에 작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빠진 부분이다. 인목대비는 폐위되어 서궁에서 생활했는데 이때의 생활이 작품에서는 많은 부분 과장되고 허구로 되어 있다. 인목대비의 생활이 아주 곤궁하고 비참한 것처럼 서술하여 인목대비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려한 것이다. 이처럼 <계축일기>는 작자가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재창조한 것으로 허구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허구성은 <계축일기>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닌 소설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계축일기>는 조선시대 광해군 대를 배경으로 하여 실존했던 인물들을 등장인물로 설정하였지만 장르가 소설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작자의 의도에 의하여 새로운 성격을 가진 인물로 재탄생하게 된다. 광해군은 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유순하지 않고 속이 좁으며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는 포악하고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효의 근본도 모르는 인물로 어리석고 무능하여 공사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인 것처럼 표현한다. 이에 반해 인목대비는 어진 품성과 착한 마음을 가진 인물로 인내심이 강하며 사려 깊고 조심성이 많은 인물로 묘사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설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인물로 가족애가 깊고 처절한 모성을 가진 여인으로 묘사해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선을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한다. 이것은 작자가 선과 악을 대립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을 설정한 결과이다. 나인들도 선을 대표하는 인물과 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대비시켜 그 성격을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작자의 창작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악인인 광해군과 그의 측근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선인인 인목대비와 그의 측근들의 고난과 고통을 후대에 알리고자 하여 새로운 인물로 재탄생한 것이다.

<계축일기>는 <인현왕후전>·<한중록>과 함께 궁중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궁중소설로서 가지는 가치가 크다. 궁중 안에서의 처절한 삶의 현장을 소설화하였고 소설문학 발달에 크게 이바지했다. 주로 대화를 통하여 내용을 전개하여 생동감 있게 내용을 전달하였고, 서간문을 삽입하여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를 잘 묘사하였다. 또한 여성의 시각에서 쓰인 작품으로 여성의 한을 작품으로 승화했다는데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계축일기>는 궁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나인들의 이야기가 상당부분 있는데 실록이나 공적인 기록에서는 알 수 없는 이면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폐쇄된 사회에서만 가능한 고어와 중후하고 전아한 궁중용어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특수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며 순수 고유어를 사용하여 문학성을 높여주며 중세국어 연구에도 도움을 준다는데 문학사적 가치가 있다.

필자는 <계축일기>의 장르를 소설로 설정하고 작품을 소설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았다. 대표적인 근거로 허구성을 설정하고 작품에 나타난 허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소설로서 작품자체가 갖는 문학사적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 문학사적 가치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작품에 나타난 전반적인 문학사적 가치에 대하여는 다루었다고 본다. 앞으로는 기존에 많이 연구된 작품의 장르나 작자의 문제가 아닌 작품 자체가 갖는 문학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자료>

『선조실록』, 민족문화추진회, 1987~1988.
『선조수정실록』, 민족문화추진회, 1989.
『광해군일기』, 민족문화추진회, 1992.
이익성 외 역작,『국역 연려실기술Ⅴ』제19권 폐주 광해군 고사본말, 민족문화추진회, 1982.
정은임 교주,『계축일기』, 이회문화사, 2005.

<단행본>

강한영 교주,『계축일기』, 민협출판사, 1958.
김기동,『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65.
김용숙,『이조여류문학 및 궁중풍속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70.
남구만,『약천집』제27권, 성백효 옮김, 민족문화추진회, 2004.
민병도,『조선역대여류문집』, 을유문화사, 1950.
민영대,『계축일기 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0.
_____,『조선시대 궁중소설 연구』, 역락, 2004.
이병기·백철 공저,『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68.
조윤제,『한국문학사』, 탐구당, 1970.
조재현 옮김,『계축일기-인목대비 서궁에 갇히다』, 서해문집, 2003.
홍기원 역주,『서궁일기』, 민속원, 1986.

<논문>

권혁래,「조선 후기 역사소설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소고」,『열상고전연구』제10집, 열상고전연구회, 1997.

길영경, 「서궁일긔와 계축일기의 비교」, 『성대문학』 제18·19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3~1976.

김강호,「역사소설론 시고」,『국어국문학』제18·19合輯, 국어국문학회, 2004.

김신연,「서궁일기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김용숙,「계축일기 연구 - 광해군의 성격 분석을 主로」,『기념논문집7』, 숙명여자대학교 학술지논문, 1968.

김일근,「계축일기 신고」,『국어국문학』, 제55~57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2.

김정경,「계축일기에 나타난 선악관 고찰」,『한국고전연구』 동권 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김정석,「계축일기 인물성격 고 - 내인들의 성격을 중심으로」,『우리어문 연구』, 우리어문학회, 1999.

김혜영,「계축일기의 서사적 특성」,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민영대,『계축일기 연구』, 숭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박연호,「계축일기와 당시 한문일기들의 대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성기동,「계축일기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소재영,「궁정문학의 비극성」,『민족문화연구』3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9.

신정숙,「궁정내에서 성립된 수기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오영심,「궁중문학의 교수·학습 방법 고찰 : <계축일기>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여순민,「궁중문학의 문학 교육적 가치 고찰」,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금희,「궁중문학 연구(1) - 궁중문학 출현배경과 작품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제26집, 한국문학회, 2000.

임창순, 「궁정문학 소고 - 서궁일긔를 발견하고서」,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50호, 1993.

정병설, 「계축일기의 작가문제와 역사소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15집 단일호, 한국고전문학회, 1999.

정은임, 「계축일기는 과연 소설인가? - 장르 파악을 위한 재조명」, 『원우논 총』 제4집, 숙명여대 대학원 원우회, 1986.

_____, 「궁정실기 문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_____, 「朝鮮朝 宮中文學의 장르 再照明」, 『동양학』 제32집, 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연구소, 2002.

_____, 「궁중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문맹연지』 제21호, 한국문맹학회, 2008.

한상희, 「계축일기의 표현 특성론」, 『숭전어문학』 제1집, 숭전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2.